



2022.12.31.

국회미래연구원 | 기획연구보고서 | 22-02호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

연구진

내부 연구진

김태경 부연구위원(연구책임)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한번 누가 어떤 전쟁의 피해, 상흔을 안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유엔은 코소보, 르완다 내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무력갈등, 분쟁 상황에서 여성이 차별화된 경험을 하며 평화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통과시키고 '여성, 평화, 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 의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유엔 WPS 의제를 한반도 맥락에서 실현하는 것은 그대로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질적 분쟁이 지속되어온 사회에서는 물리적 폭력을 중단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 분쟁의 구조적 조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 일상에서의 평화구축 노력을 통해 화해와 재건으로 나아가는 것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평화과정이 필요합니다.

평화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여성 스스로가 희망하고 선호하는 평화를 구축하는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구상을 목표로, 본 연구는 유엔 WPS 의제의 관점에서 한반도 맥락에서 여성들이 일상의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층적으로 청취했습니다. 본 연구가 서울 지역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한반도 미래대화는 앞으로 다양한 지역, 계층, 세대, 젠더를 포괄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안보에 함몰되지 않고 개인의 인간안보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평화 담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계속 발간해갈 예정입니다. 이번 탐색연구에서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한 김태경 부연구위원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2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제1장 서론: 유엔 WPS 의제와 한반도 평화구축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제2절 기존 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연구 방법: 서울지역 여성 FGI 설계와 수행	9
제1절 연구 목적과 대상	11
제2절 FGI 설계	16
제3절 FGI 수행	20
제3장 연구 결과 분석: 여성의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한반도 평화 인식	27
제1절 FGI 결과 분석: 서울시 여성들의 평화 인식	29
제2절 여성과 일상의 안전	33
제3절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42
제4절 여성과 한반도 평화	52
제4장 결론: 젠더 평등과 한반도 평화구축	69

참고문헌 75

- 1. 문헌자료 77
- 2. 웹사이트 80

Abstract 81

[표 1] FGI 사전질문지	13
[표 2] FGI 소그룹 구성	14
[표 3] FGI 참여자 목록	14
[표 4] FGI 소주제별 세부 질문	17
[표 5] FGI 여성과 안전 소주제 질문	33
[표 6]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소주제 질문	42
[표 7] 여성과 한반도 평화 소주제 질문	52

그림 목 차

[그림 1] 전체 FGI 워드클라우드 결과	31
[그림 2] 여성과 안전 워드클라우드 결과	34
[그림 3]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워드클라우드 결과	43
[그림 4] 여성과 한반도 평화 워드클라우드 결과	53

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를 여성의 관점에서 탐색, 준비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의 미래는 그 미래가 실현되는 공간, 즉 한반도를 거주 공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 선호에 영향력을 받으며 이러한 미래전망, 미래 선호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때 실현에 가까워진다. 중장기적 시야에서 여성들의 평화구축에 대한 미래전망과 미래선호를 탐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아직까지 여성의 참여, 대표가 제한적인 현재의 한반도 평화과정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평화구축의 다양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젠더의 사회적 구성과 관련해 평화, 안보 페러다임 자체가 어떤 젠더화된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평화,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는 안보, 평화 담론 및 실천이 갖는 젠더화된 성격, 즉 특정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일련의 태도, 가치, 규범 등 체계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을 조명했다. 연구자는 유엔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 의제의 틀 하에서 서울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의 소주제, 즉 1) 여성과 일상의 안전, 2)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3) 여성과 한반도 평화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선호를 조사했다.

20-60대에 걸친 서울시 거주 여성들의 FGI(5그룹, 총 25명) 결과, 여성들은 개인 안전, 삶의 질, 평등, 공정 등 광범한 차원에서 평화를 정의하고 변화, 대응을 요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에게 한국은 더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점, 법제도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하는 일터(혹은 가정)에서의 젠더 간 불평등을 지적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인식과 미래의 평화, 통합을 위한 폭넓은 제안과 상상을 내놓았다. 본 연구의 일상의 안전, 삶의 질 보장, 평등과 정의의 조건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의식, 선호 결과는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의 관점에서 평화가 여성의 인간안보, 기본권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정의
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응이 기존의 전통안보 관점의 '소극적 평화' 노력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1 장

서론: 유엔 WPS 의제와 한반도 평화구축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기존 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연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를 여성의 관점에서 탐색, 준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증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의 미래는 그 미래가 실현되는 공간, 즉 한반도를 거주 공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 선호에 영향력을 받으며 이러한 미래전망, 미래선호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때 실현에 가까워진다고 본다(박성원 외 2022; 김태경 외 2022). 다시 말해 평화구축의 미래와 관련해 거시적 구조 차원의 미래 예측, 전문가들의 참여만이 아니라 평화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미시적 행위자 차원에서 일반 시민, 특히 기존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소수자들의 목소리, 참여를 포괄하는 것을 중요한 전제로 고려한다. 그중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주제에서 그 주체적 역할, 참여와 대한 조명이 여전히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에 초점을 맞춘다.

여성들의 한반도 평화구축에서의 역할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평화구축의 개념정의를 제시함으로써 왜 일반 시민, 여성의 관점 탐색이 중요한지 확인하기로 한다. 고질적 분쟁을 경험했거나 그러한 분쟁의 여파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회들에서 평화과정(peace process)이란 평화실현을 위한 다양한 단계 혹은 방법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조성(peacemaking),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포함한다(Webel and Galtung 2007; Webel and Johansen 2012).

평화유지가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군과 같은 국제기구의 평화적 수단을 통해 물리적 폭력사태의 악화를 막는 군사적 통제, 제한을 뜻한다면,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조성은 폭력, 분쟁의 지속과 관련된 광범한 당사자들 간 평화협상을 바탕으로 분쟁의 재발을 막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Galtung 1976; Boutros-Ghali 1992; Reyhler 2010). 평화구축은 평화유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분열된 사회의 구조적·문화적 조건 자체를 전환함으로써, 불신, 증오, 배제, 차별과 같이 고질적 갈등으로부터 기원하고 다시 이를 강화하는 구조로부터 벗어나 화해, 용

서, 평화공존, 통합의 새로운 정치적 관계로 나아가는 증장기적 전환(transformation, transition) 과정을 의미한다(Lederach 2015; Galtung 1996).

개념정의상 평화유지, 평화협정과 달리 평화구축은 기존의 갈등, 분쟁의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포함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미래의 관계에 대한 합의, 실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구조적 전환의 결과는 갈등, 분쟁의 반복, 혹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의 이행, 즉 적어도 상호 간 적이 아닌 상태에서 화해, 용서를 통한 역사적 치유를 수행하고 미래의 공존, 평화 혹은 통합을 설계, 실현하는 것이다(Galtung 1976; 1996; Lederach 1999, 32-35; 김동진 2013, 28-29). 이러한 관계적 전환의 미래를 포함하는 평화구축은 논리적으로 증장기적 지평의 시간표, 로드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과거와 구별되는 새로운 미래의 관계를 구현하는 행위자로서 정부 단위가 아니라 이러한 평화의 새로운 관계를 구현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인들을 중요하게 포괄한다. 또한 해당 사회의 정치집단, 공동체뿐 아니라 국제기구, 지역기구,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 개입을 망라한다.

이러한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과정을 평가한다면 한반도 평화구축의 성공은 남북한 당국 주도의 정부간(inter-governmental) 협상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사적 역할, 민간의 접촉 및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발견과 실험 등의 자산에 달려 있다. 특히 탈냉전 민주화 이후 한반도 통일·평화 정책과 관련된 국내정치,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어왔으며, 최근에도 교착을 반복하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경로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한 정책 변화 및 당국간 노력과 병행하는 재야, 시민사회의 통일·평화운동의 역할, 남남대립의 국내정치적 양극화 맥락을 조명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및 선호, 역할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경로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경로를 구성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한국 사회 여성들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에 대한 전망, 선호를 탐색한다. 증장기적 시야에서 여성들의 평화구축에 대한 미래전망과 미래선호를 탐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여성의 참여, 대표가 제한적인 현재의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예컨대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남북간 고위급 접촉(남측 7명, 북측 9명)에 포함된 여성은 2명(강경화 전 외무장관, 김여정 당시 당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자문위원회에 망라된 경우는 자문위원 3명(전체 21명), 전문가 위원 4명(전체 25명)이었다(Jung 2020). 이러한 안보·평화구축의 정책결정과정의 직접적 참여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 여론 형태로 여성들의 평화구축에 대한 문제의식과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은 안보·평화 연구 및 정책적 실천에서 여전히 비주류적 위치에 머문다. 그러나 평화 주제에 대한 여성의 인식, 역할에 대한 탐색은 기존의 거시적·물리적 차원의 안보, 소극적 평화 노력은 물론 미시적·문화적 차원의 안보, 폭력의 제거를 넘어서는, 다양한 평화구축의 조건들을 조명하는 적극적 평화 노력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평화구축 노력에서 중요하게 포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평화구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민사회의 인식, 선호를 파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인식 및 미래전망, 미래선호를 탐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접근의 확장과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기존 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평화·안보 연구, 실천에서 여성의 경험과 인식, 역할의 차별성에 대한 인정, 이를 바탕으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젠더들이 배제되지 않는 평화구축을 설계, 수행해야 한다는 흐름은 탈냉전기 유엔 차원의 보편적 국제규범의 확립으로 이어졌다. 결정적으로 2000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통과 이후 연속적으로 이어진 9개 결의안에 기반한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 의제는 분쟁해결과 예방,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에서 모든 인간의 인권과 요구를 포괄하는 접근, 참여의 확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실천, 기제를 촉발시켰다.

유엔의 WPS 의제를 비롯한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국제정치학 연구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이해되는 권력, 국가, 이분법, 과학성 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국가안보 주도의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와 안보의 문제를 재구성해왔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탈냉전 이후 구성주의,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등 탈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배경으로, 전통적 국제정치학의 젠더화된 패러다임 자체를 비판하면서 전쟁과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젠더적 분석, 여성들의 경험과 역할을 포괄하는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정책, 페미니즘 관점에서 국제정치학 이론과 정책의 재구성 등을 추구해왔다(Enloe 1989; Tickner 1992; 2001; Silvester 2001; Confortini 2012; Sjoberg 2013; 황영주 2003; 강윤희·김경미·최정원 2004; 김엘리 2010; 강윤희 2013).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통과 이후 후속 결의 및 의장성명들이 이어진 WPS 의제의 경우, 분쟁 및 모든 형태의 폭력, 갈등 예방(prevention), 평화·안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평등한 참여(participation), 분쟁, 분쟁후 상황에서 폭력 및 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분쟁후 복구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 및 주체 역량 강화(relief and recovery)의 네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성-평화구축 담론과 정책적 실천을 촉발해왔다. 분쟁, 분쟁후 맥락과 분쟁 예방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젠더

평등 이슈를 포괄하는 WPS 의제가 실제 정책적 논의로 발전해온 궤적은 네 개의 주제 영역이 비슷한 비중으로 성장해왔다기보다는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CRSV) 해결 이슈에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었다(Goetz and Jenkins 2019).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후속 결의들이 연속적으로 통과되면서 다양한 방식의 국제기구의 개입 절차가 강화되는 성과를 거둔 반면 WPS 의제에서 이러한 ‘보호’ 이슈에 대한 집중은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 대표, 역량 강화 이슈는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한계를 낳기도 했다(Goetz and Jenkins 2019, 129). 특히 ‘보호’ 이슈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여성을 역량이 결핍된 ‘피해자’, 남성을 호전적인 ‘가해자’로 상정하는 기존의 젠더화된 프레임워크를 답습하는 관점의 모순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양한 비판과 문제의식을 야기했다(Davies and True 2019, 5; Otto 2019).

한반도 평화, 안보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는 한반도 평화구축에서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적 역할과 정책적 방향성(정현백 2004; 2014; 심영희·김엘리 2005; 문소정 2009; 문아영 2020; 김정수 2020), 유엔 WPS 의제의 보편적 틀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대표, 참여 확대에 대한 논의(강윤희 2013; 조영주 2021), 전쟁과 평화의 광범한 주제에서 페미니즘적 분석 및 정책적 제언(박강성주 2010; 이나영 2010; 김현미 2010; 이현옥 2016; 김엘리 2016; 황영주 2013)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가 살펴보는 여성들의 평화구축에 대한 인식, 선호 측면과 관련해서는, 정례적 통일인식조사, 평화인식조사 등에서 성별 변수에 대한 분석들이 존재한다. 성별에 따른 평화, 안보 인식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통일선호가 강한 반면 여성은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하다든가, 20대 남성에게 비해 20대 여성의 통일, 평화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들이 존재한다(통일연구원 2020; 2021). 또한 최근 국제정치학의 ‘여성평화가설’에 대한 검증 연구는 한국 사회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나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는 덜 부정적이라는 점, 페미니즘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평화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남북 간 대화·타협에 긍정적이거나, 통일세 부담에서는 소극적이라는 점 등을 결과로 제시하기도 했다(김영준 2019; 구본상 2020).

본 연구는 여성-평화구축의 다양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젠더의 사회적 구성과 관련해 평화, 안보 페러다임 자체가 어떤 젠더화된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탐색에 있어서는 생산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생물학적 성차에 따른 분석과 차별화된 접근으로서, 본 연구는 단순히 성별에 의한 인식 차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여성들이 일상의 공간들에서 다른 경험과 인식을 형성해왔는가 그 사회화되는 맥락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정된 규모이나마 여성들의 소그룹 토론을 기획했다. 평화,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는 안보, 평화 담론 및 실천이 갖는 젠더화된 성격, 즉 특정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일련의 태도, 가치, 규범 등 체계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을 조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FGI는 한반도 평화·통합의 미래에 대한 전망, 선호를 묻는 ‘한반도 미래대화’의 일환으로 한국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한편, 일종의 초보적 연구로 서울시 거주 여성들의 소그룹 토론을 제한된 규모로 진행했다. 본 연구의 FGI는 개별 여성들과의 심층토론의 형식을 통해 평화, 안보의 문제를 기존의 국가안보 개념에 한정되지 않는 인간안보와 같은 대안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평화구축의 결과, 영향을 직접 살아가는 개별 인간의 수준에서 어떤 젠더화된 차별적 경험, 인식이 존재하는가를 드러내고 여성들이 갖는 평화구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

제2장

연구 방법: 서울지역 여성 FGI 설계와 수행

제1절 연구 목적과 대상

제2절 FGI 설계

제3절 FGI 수행

제 1절

연구 목적과 대상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구축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및 실천의 현재를 이해하고 여성들의 참여에 기반한 향후 평화구축의 미래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초보적 연구로, 우선 서울지역에 한정해 평화구축에 대한 여성들의 초점집단면접(FGI)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에 대한 한국 여성들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면서 연구 예산 및 기간을 고려해 서울지역 여성들에 한정해 FGI를 수행했다.

유엔 여성, 평화, 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 아젠다에서 제기한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 문제에 대한 젠더 평등, 기존의 젠더화된 안보 담론 및 실천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바탕해, 본 연구는 유엔 WPS 의제의 틀 안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에 대한 한국 여성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2000년 안보리결의 1325호 채택에 따른 유엔 WPS 의제는 △분쟁 및 모든 형태의 폭력 방지(prevention), △평화·안보 정책결정과정에서 젠더 평등(participation), △분쟁 상황에서 폭력 및 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분쟁 및 분쟁후 상황에서 복구·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 및 역량 강화(relief and recovery) 등 4개 주제를 망라한다(Ni Aolain, Cahn, Haynes and Valji 2018; Gentry, Shepherd and Sjoberg 2019).

유엔 WPS 의제는 폭력, 분쟁 상황이 젠더에 따라 사실상 차별화된 영향을 보인다는 경험적 현실에 따라 전장 뿐 아니라 전쟁 중, 그리고 전후 일상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과 관련해, 총체적인(holistic)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Davies and True 2019). 여성이 경험하는 갈등, 폭력의 영향을 이해하고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평화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직접적 폭력의 해결이 아닌 고질적 분쟁의 구조적 전환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에서 모든 젠더를 포괄하는 관점이 필수적이다(Otto 2019).¹⁾ 즉

군사적 폭력의 종식 및 위협 관리와 연관되는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조약, 협정을 통한 평화조성(peacemaking)을 넘어서 일상적 수준에서 분쟁후 평화정착이라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이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는 동시에, 젠더, 계층, 인종 등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평화구축의 결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평화구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유엔 WPS 의제의 핵심이다.

유엔 WPS 의제의 문제제기는 결국 누구의 관점에서 평화를 말하고 실천하는가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며, 모든 젠더를 안보, 평화 담론 및 실천에 포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평화구축의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엔 WPS 의제의 문제의식에 입각해 한반도적 맥락에서 젠더기반폭력, 무력 분쟁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들의 차별화된 경험 및 인식을 밝히고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평화구축의 미래를 구성하는 정책적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평화구축 주제에 대한 한국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청취하는 FGI를 기획, 수행했다. FGI는 연구주제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진 참여자들이 소규모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상호작용 과정에서 의견을 어떻게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 받는지, 그 결과 해당 주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등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에 대한 개인들의 입장 뿐 아니라 사회적 문맥 및 소그룹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수렴, 분산되는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평소 여성, 평화, 안보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참여자들의 소그룹 토론의 '미래대화'의 틀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하면서 연구주제에 대한 어떤 나름의 결론을 모아가는가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개별 인터뷰에서 찾기 어려운 사회적 논쟁 구도 및 토론을 통한 접점의 가능성 등을 탐색했다. 특히 미래전망의 시야에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논쟁하는 FGI를 수행함으로써 여성, 평화, 안보 주제에 대한 일종의 숙의형 공간으로서 '한반도 미래대화'의 가능성도 실험했다.

1) 젠더 개념은 생물학적 성차(sex)가 아니라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 구현하는 인위적 사회적 구성물로서 (이성애적)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Confortini 2006, 335).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분법적 체계에 따른 젠더화된 패러다임이 안보·평화 담론, 실천에서 여성의 '피해자성', 남성의 '가해자성'을 상징하고 평화구축에서의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여성의 평화애호적 성격, 남성의 폭력적 성격을 강조하는 본질주의적 접근 역시 사실상 사회의 젠더화된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평화구축은 이분법적 젠더화된 체계를 넘어 남성은 물론 LGBTQ의 다양한 젠더들을 포괄하는 평화구축 노력이 되어야 한다(Otto 2019, 114-115).

2 연구 대상과 기간

본 연구는 FGI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60대 연령대의 여성으로 여성, 평화, 안보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참여자들 중에서 선정했다. FGI 참여자는 연구진이 의뢰한 FGI 용역 업체인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회사가 보유한 응답자 패널 중에서 서울시, 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 여성의 조건과 함께, 연구진이 미리 제공한 여성, 평화, 안보 관련 사전질문지의 4개 질문에 모두 '예'로 응답하고 일정 참여가 가능했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표 1] FGI 사전질문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생님께서는 한국 사회가 여성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2. 선생님께서는 일터에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임금·노동 조건·복지 등에서 차별된 경험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3.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쟁 시기에 여성들의 차별화된 경험과 인권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4. 선생님께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 또는 평화교육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연구진과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측은 총 25명의 연구 대상자를 뽑아 그룹당 4~6명씩 5개 그룹을 구성했다. 5개의 그룹은 유사한 연령대끼리 집단 토론을 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 고려해 연령대별로 묶어, 20대 2그룹, 30-40대 2그룹, 50-60대 1그룹으로 구성했다. 총 25명의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6.9세였으며, 참여자들의 직종은 대학생부터 전업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

[표 2] FGI 소그룹 구성

	9월 14일(수)	9월 15일(목)
10:00~12:00	-	3그룹 30~40대 6명
13:00~15:00	1그룹 30~40대 5명	4그룹 50~60대 4명
16:00~18:00	2그룹 20대 4명	5그룹 20대 6명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 주제의 FGI는 9월 15-16일 양일 간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내부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FGI는 리서치 측에 소속된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연구진은 연구책임자와 자문으로 심리학 전공 연구자²⁾가 참여관찰을 위해 동석했다.

이틀 동안 참여한 총 25명의 FGI 참여자들의 기본적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FGI 참여자 목록

그룹	날짜	이름	연령	거주지(구)	직업	결혼여부
1	9월14일 13시	참여자A	38	동작구	주부	기혼
		참여자B	44	양천구	직장인	미혼
		참여자C	36	성북구	직장인	미혼
		참여자D	32	종로구	대학생	미혼
		참석자E	45	강남구	주부	기혼
2	9월14일 16시	참여자F	26	금천구	취업준비생	미혼
		참여자G	24	동대문구	대학생	미혼
		참여자H	25	강서구	대학생	미혼
		참여자I	26	종로구	프리랜서	미혼
		참여자J	40	동작구	주부	기혼

2) 이하연 성균관대 강사

그룹	날짜	이름	연령	거주지(구)	직업	결혼여부
3	9월15일 10시	참여자K	32	송파구	직장인	기혼
		참여자L	39	영등포구	프리랜서	미혼
		참여자M	44	강동구	주부	기혼
		참여자N	43	강남구	주부	기혼
		참여자O	47	서초구	프리랜서	기혼
4	9월15일 13시	참여자P	65	영등포구	주부	기혼
		참여자Q	63	강남구	주부	기혼
		참여자R	59	서초구	주부	기혼
		참여자S	52	성동구	학원운영	기혼
		참여자T	21	성북구	대학생	미혼
5	9월15일 16시	참여자U	27	양천구	직장인	미혼
		참여자V	28	서초구	직장인	미혼
		참여자W	25	성북구	대학생	미혼
		참여자X	24	관악구	대학생	미혼
		참여자Y	29	영등포구	직장인	미혼

제2절

FGI 설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와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퍼실리테이터는 7-8월 몇 차례 회의의 바탕으로 FGI 진행 방법과 과정을 확정했다. FGI는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바탕한 인터뷰로서 사전에 연구자가 퍼실리테이터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완성한 인터뷰 질문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유엔 WPS 의제의 틀 안에서 한반도 맥락에서 여성의 평화, 안보 인식의 지형을 탐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크게 세 가지의 소주제별로 세부 질문을 구성했다. 세 가지 소주제는 1) 여성과 일상의 안전, 2) 여성과 일터/가정, 3) 여성과 한반도 평화로 나눠 소주제별로 2-3개의 세부 질문을 배치했다. 인터뷰 질문지는 FGI 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 퍼실리테이터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의 FGI에서 해당 질문 및 질문들의 흐름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를 고려하며 완성했다.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의 대주제와 관련해 세 가지 소주제 유형으로 질문들을 나눠 접근한 것은 일상의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그리고 거시적 차원의 한반도 평화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영역, 층위에서 어떻게 안보, 평화 담론 및 실천이 젠더화, 즉 특정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일련의 태도, 가치, 규범 등 체계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생물학적 성차에 따른 인식 조사 및 분석과 차별화된 접근으로서 본 연구는 단순히 성별에 의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여성들이 일상의 공간들에서 다른 경험과 인식을 형성해왔는가 그 사회화되는 맥락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안보·평화 담론, 실천의 젠더화된 성격을 조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파일럿 스튜디오 젠더화된 안보, 평화의 패러다임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설계로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적어도 일상의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평등과 관련된 토론을 중요한 소주제로 배치함으로써 일상적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자기실현의 측면에서 어떻게 젠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도록

구성했다. 본 연구의 소주제 분류는 국가안보 개념을 넘어서서 안보, 평화를 인간안보와 같은 대안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단일한, 일종의 ‘주어진 것’으로 안보를 이해하기보다 그 안보의 영향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개별 인간의 수준에서 어떤 젠더적 차등이 존재하는가를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다. 한반도 평화의 소주제를 논하기 전에, 일상의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평등이라는 두 개의 소주제 토론을 배치함으로써 안보, 평화의 담론 및 실천 자체가 얼마나 어떻게 젠더화된 성격을 갖는가를 보다 통합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물론 두 개의 소주제에 대한 논의가 총체적 접근으로서 안보, 평화의 젠더화된 패러다임, 실천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초적인 시도로 여성들이 사회 전체의 치안,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여성의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일터/가정에서의 자기실현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는지 등에 대한 FGI 관찰을 통해 기초적인 수준에서나마 여성들의 안전, 평등의 감각이 어떻게 다르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그 젠더화된 성격을 드러내는 데는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일상의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세 가지 다른 영역, 층위에 대한 소주제별 토론을 통해 안보, 평화 개념이 갖는 젠더화된 성격을 이해하는 FGI를 설계했다.

[표 4] FGI 소주제별 세부 질문

FGI 소주제	소주제별 질문
여성과 안전	한국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
여성과 일터/ 가정에서의 평등	한국 사회가 평등, 공정,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자신의 일/가정에 만족하는가?
	여성으로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여성과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0-40년 뒤 한반도의 가능한 미래, 바라는 미래상은 무엇인가?
	회피하고 싶은 미래는 무엇인가?

세 가지 소주제가 다루는 일상의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한반도 평화구축은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 후(post-conflict) 사회에서 폭력,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의 경험과 요구, 해법의 다양한 측면에서 얼마나 젠더화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강조하는 유엔 WPS 의제의 틀,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폭력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 감각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분쟁 상황에서의 차별화된 경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슈이다. 다음으로 일터/가정에서의 평등이란 사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사안으로 해당 사회의 평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스스로 어떤 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며 평화구축을 위해 어떤 방법, 선택지를 취하는가 등의 인식과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는 여성들이 한반도 맥락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미래전망, 미래선호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 방법에 대한 평가를 포괄한다.

유엔 WPS 의제는 평화구축에 대한 통합적 접근, 즉 개별 여성 수준의 안전 보장과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포괄되는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경로를 제시한다(Ni Aolain, Cahn, Haynes and Valji 2018; Gentry, Shepherd and Sjoberg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유엔 WPS 의제의 관점에서 해당 사회구성원이 젠더를 떠나 보호를 받으며 장기적인 평화구축의 과정에 동등하게 각자의 요구를 존중받고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평화구축의 총체적 접근을 지지한다(Davies and True 2019). 이러한 총체적 접근에 기반해 본 연구는 유엔 WPS 의제의 관점에서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구축의 미래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상의 안전,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여성과 한반도 평화 세 개의 소주제를 제시했다.

세 가지 소주제간 연계에 대해서 본 연구는 유엔 WPS 의제의 네 개의 '기둥'(pillars), 즉 '보호', '참여', '예방', '복구재건'의 주제 영역의 문제제기가 따로, 혹은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한편으로, 장기적 실행 과정의 측면에서는 각 주제 영역 담론, 실천의 발전이 다른 영역의 문제의식과 연계, 병행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을 유념한다(Davies and True 2019, 5-8). 예컨대 WPS 의제 담론이 특히 '보호' 영역에 치중하게 된 흐름이 누가 어떻게 분쟁,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여성들의 보호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논의를 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보호에 있어서 더 많은 여성들의 참여, '주류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적 전환으로 이어진 궤적을 고려하는

것이다. 더 많은 여성들을 안보 섹터에 포괄하는 젠더 주류화의 접근은 다시 정치, 사법 제도는 물론 분쟁 예방 및 평화협상 과정 등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변화와 필수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보호'와 '참여' 주제 영역간 연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WPS 의제에 대한 기존 논의 및 실천의 궤적을 참고하면서 본 연구는 여성의 일상에서의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한반도 평화구축의 세 주제를 여성들의 평화구축에 대한 선호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는 한편 상호 연계되는 주제로 파악한다. 본 연구는 소 주제별 그룹토론 과정에서 사회에 내재한 젠더화된 패러다임을 일정하게 드러내는 한편 이러한 젠더화된 사회구조의 맥락에서 여성들이 경험, 인식하는 평화, 안보의 문제, 해결 요구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청취할 것을 기대한다.

제3절

FGI 수행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퍼실리테이터의 주관하에 FGI는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 과제인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 과제명을 직접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안보에 대한 서울 지역 여성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 FGI는 연구자와 퍼실리테이터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준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었다. 퍼실리테이터는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FGI를 진행하면서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소주제별 질문과 전체 시간을 조율했다.

5개 그룹의 FGI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모두 ‘평화는 OO다’와 관련해 각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간단한 순서를 두어 참여자들이 연구 주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참여자들끼리 비교적 빠르게 생각을 교환하도록 했다. 이러한 ‘아이스브레이킹’ 차원의 질문은 평화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공유함으로써 첫 번째 소주제인 ‘일상의 안전’에 들어가기 전에 참여자들이 조사에 녹아드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퍼실리테이터는 FGI가 ‘개인의 평화’, ‘사회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와 같이 ‘나’에서 시작해 점차 넓어지는 이야기를 평화의 미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하고 ‘평화는 OO다’ 논의를 마친 후 첫 번째 소주제부터 질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일상 생활에서의 평화, 직장/가정에서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순으로 진행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에는 FGI를 마무리하면서 참여자들에 사후질문지 응답을 받았다. 사후질문지로는 처음에 제시했던 ‘평화는 OO다’를 다시 한 번 물어봄으로써 소규모그룹토론 형식의 ‘미래대화’ 이후에 참여자들의 생각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확인하는 한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일련의 선택지(모든 개인의 안전, 삶의 질 보장, 평등한 기회,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방식, 군비경쟁 완화, 교육 등)를 예시로 제공했다.

[자료]

소규모그룹토론 가이드라인

1	인사말 및 행사 취지 소개 [3분]
---	---------------------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미래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과제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의 대면 좌담회 진행을 맡은 미디어리얼리서치의 000 모더레이터입니다.

앞으로 약 1시간 30분-2시간 동안 한반도 평화, 안보,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해 한국 사회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일상에서 경험했던 평화에 대한 생각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존 등에 대해 생각하고 느꼈던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점들은 익명으로 반영되어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여성 인권을 위한 입법, 정책 개발에 쓰일 예정입니다.

2	참석자 소개 [7분]
---	-------------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의견을 나누실 분들은 000님부터 차례대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함 혹은 닉네임과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1분 내외로 부탁드립니다.

3	진행방식 안내 [5분]
---	--------------

오늘 진행방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미래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00대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개인의 평화입니다. 우선 ‘평화’의 정의와,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으로, 일터와 가정, 우리 사회에서의 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 뉴스나 신문에서 본 사회적 사건 사고를 통해 들었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도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발언의 기회는 손을 들어 의사 표명해주시면 제가 지목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30분-2시간의 한계상 참석하신 모든 분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발언자를 지목할 수 있으며, 주제와 상관없다고 판단되는 내용, 또는 한 주제의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죄송하지만 중간에 말씀을 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1 ‘개인의 평화’, 일상의 안전 [35분]
---	----------------------------------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1. 평화의 정의 [15분]

- ▶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가요? 평화는 네모다 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 ▶ 그 평화를 유지하거나 지키기(쟁취)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 ▶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평화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2. 일상생활에서의 평화 [20분]

- ▶ 한국 사회는 살아가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사회가 불편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 순간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 ▶ 특히 여성으로서 한국사회가 불편하고 위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와 경험했던 상황이나 사회적 사건사고가 있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 강남 문지마 살인사건, 여성 범죄 피해자 비율 80% 등

5	#2 '사회의 평화',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20분]
---	---------------------------------------

5-1. 직장와 가정에서의 평화 [20분]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에 종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 ▶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 ▶ 선생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원하는 직장, 직무 및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예) 임금, 복지, 성차별 등
- ▶ 여성으로서 직무에 있어 **차별** 받았거나, 여성이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기회, 역할로부터 배제 및 차별
- ▶ 일터에서, 가정에서 불합리하다든지 불평등하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문제,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혹은 이런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예) 갈등하는 당사자들을 모두 포괄/일부 배제하는 방식의 대화, 협의의 순서, 과정 등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듣고 싶습니다.
- ▶ 여성으로서 직무에 있어 **특혜** 받았거나, 여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돌봄노동, 가사노동, 감정노동

6	#3 한반도의 평화 [35분]
---	-------------------------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등 우리에게도 전쟁의 여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전 상태인 한반도도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개인의 평화, 일상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6-1. 한반도 평화, 안전을 위한 요소 [15분]

- ▶ 한반도 평화, 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어떤 집단, 사회, 국가, 제도 등
- ▶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군사력 강화/군축, 남북한 외교에서 더 강경한 혹은 포용적인 입장 표명, 국내정 치적 갈등 해결 등

6-2.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 회피미래 [20분]

- ▶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신가요, 부정적 이신가요?
- ▶ 남북한 통일에서 어떤 형태의 통합,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가능미래)
- ▶ 남북한 통일에 대해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어떤 통합, 공존의 미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호미래)
- ▶ 한반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미래일까요?

7	마무리 [5분]
----------	-----------------

시간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정말 건설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예비)[10분] 오늘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처음 드렸던 질문들 다시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좌담회 시작에 ‘평화는 네모다’에 대한 여러분의 정의를 여쭙보았는데요. 좌담회에 참석하시면서 평화에 대한 정의가 바뀌신 분이 있을까요? 바뀌신 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쭙보고 오늘 좌담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간 제약으로 오늘 다 다루지 못한 의견은 이후 간단한 사후질문지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사후질문지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하거나, 이 부분은 미처 말하지 못했다 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간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후 질문지:

1. 오늘 좌담회 시작에 ‘평화는 네모다’에 대한 여러분의 정의를 여쭙보았는데요. 좌담회에 참석하시면서 평화에 대한 정의가 바뀌신 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시간이 남으면 직접 듣기로 합니다.)
2.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모든 개인의 안전, 삶의 질 보장, 평등한 기회,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방식, 군비경쟁 완화, 교육 등

제3장

연구 결과 분석: 여성의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한반도 평화 인식

제1절 FGI 결과 분석: 서울시 여성들의 평화 인식

제2절 여성과 일상의 안전

제3절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제4절 여성과 한반도 평화

제 1절

FGI 결과 분석: 서울시 여성들의 평화 인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서울 거주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한 FGI는 세 가지의 소주제별로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탐색했다. 우선 ‘평화는 OO다’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FGI 참여자들은 일상의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합의 미래에 대한 세부 질문들에 대해 토론했다.

본 연구는 이틀간의 FGI 결과를 풀이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25명의 발언에 대한 소주제별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진행했다. 녹취록 전체, 그리고 세 가지 소주제별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해 각 워드클라우드에서 참여자들이 언급한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뽑아내고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발언을 분석했다. 총 25명의 FGI를 진행한 본 연구는 초보적 연구로 전체 발언 녹취록의 크기가 크지는 않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기보다는 빈도를 확인하는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했다.

여성과 일상의 안전,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한반도 평화의 세 가지 소주제별 참여자들의 발언들은 평화구축의 정의 및 전제조건,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포함했다.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을 의미하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은 군사적 폭력, 분쟁의 종식뿐 아니라 일상의 경제, 사회의 복구·재건, 뿌리깊은 갈등과 분열의 구조, 문화의 근본적 전환 등을 포괄한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소주제별 집단토론은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안전의 문제부터 사회에서의 자기실현 및 인정, 나아가 거시적 국제정치 차원의 전쟁과 평화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 및 미래상에 대해 진행되었다. 각 소주제는 다양한 층위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구성하는 한편 특히 안보, 평화의 젠더화된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소주제인 한국 사회 전체 및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의 경우 한국 사회의 기본적 치안, 그리고 그와 별개로 여성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질문했다. 한반도 평화구축 관련 인식의 조사에서 개별 여성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평가를 다루는 경우는 기존 연구에서 찾기 어려우나, 평화를 평화협정, 평화유지가 아닌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개별 시민들의 수준에서 체감하는 폭력, 위협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 전반과 비교해 여성들의 안전에 대해 나타나는 차별화된 평가는 유엔 WPS 의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분쟁, 폭력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젠더적으로 차별화된 경험과 영향을 보여주는 바, 개인들의 안전 문제가 젠더화된 사회적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를 제공한다.

두 번째 소주제에서 질문한 평등, 공정, 정의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직장 혹은 가정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및 자기실현, 여성으로서 겪는 사회적 차별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 사회적 참여 측면에서 어떤 젠더화된 구조적 맥락이 존재하는가를 드러낸다. 단순히 폭력의 유무, 군사적 긴장의 유무라는 소극적 평화의 시각에서 이러한 직장/가정에서의 자아실현 및 사회적 인정, 평등한 참여의 문제는 평화(구축)를 정의하는 데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구축은 평화의 존재 여부에 따른 파장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실현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관련해 공정한 기회, 사회적 정의가 보장되는가에 대한 인식,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만족에 대한 논의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삶의 질,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에서 어떻게 젠더화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논의함으로써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평화구축 전략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조건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주제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요인, 중장기 관점에서 한반도의 가능미래와 선호미래, 회피미래의 질문은 개인, 사회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정치상 안보,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서부터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적 조건으로서 일터/가정에서의 평등에 대한 질문이 안보, 평화 개념 자체의 젠더화된 성격을 밝히는 데 기본적 배경을 제공한다면, 거시적 차원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인식, 실천에 어떤 젠더화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왜 한반도 평화구축에서 젠더 평등의 접근을 가져야 하는가, 본 연구가 취하는 접근의 차별화된 정책적 함의를 드러내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구축의 문제, 해법에 대해 기존의 다양한 한반도 통일·평화에 대한 접근과 일련의 차별성이 나타난다면 그 지점에서 본 연구는 평화구축

에서 젠더 평등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종합하면, 세 가지의 소주제들은 각각 기존의 안보, 평화 패러다임의 젠더화된 성격을 드러내며 국가 단위가 아닌 개별 여성, 인간의 수준에서 안보, 평화를 정의, 구성한다.

FGI 전체 녹취록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결과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체 FGI 워드클라우드 결과

워드클라우드에서 언급된 빈도가 높을수록 단어의 크기가 크고 선명한 키워드로 표시된다. 총 25명의 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추출해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 결과,³⁾ 가장 크게 부각된(언급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북한’, ‘여자’, ‘문제’ 세 단어이다. 그 다음 수준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남자’, ‘사회’, ‘우리나라’(상위 5위)이며, 그보다 낮은 유사한 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상황’, ‘여성’, ‘엄마’, ‘나라’, ‘전쟁’, ‘통일’, ‘경제’, ‘남편’, ‘세대’, ‘한국’, ‘말씀’, ‘어머니’(상위 15위)으로 나타난다.

3) 많이 노출되는 빈도의 단어라도 ‘제일’ 등의 부사는 유의미한 해석을 위해 제외했다.

그보다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상위 30위 키워드는 '수도', '차별', '문화', '중국', '요즘'(상위 20위), '미국', '회사', '유지', '질문', '평화', '친구', '갈등', '직장', '국가'(상위 25위), '노력', '정치', '관계', '개인', '위협', '마음', '상태', '교류', '기사', '아빠', '범죄', '자체', '남성', '가정', '한번', '결혼'(상위 30위)이다. 아래 2-4절에서는 소주제별로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제시한다.

제2절 여성과 일상의 안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여성과 일상의 안전 소주제 토론은 기존의 국가안보 담론에서 논의가 제외되는 개별 인간의 수준에서 안보, 평화를 다룬다. 유엔 WPS 의제가 함의하는 바,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전쟁과 평화구축의 영향을 살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안보 접근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과 안전 소주제 토론을 통해 본 연구는 개별 여성들이 한국 사회 및 자신을 포함한 여성 집단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평가를 수렴했다. 이러한 개인의 안전 쟁점은 ‘공포로부터 자유’(freedom from fear)라는 인간안보의 기본적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와 연결된다.

여성과 안전 소주제에서 참여자들에 던진 질문은 다음 두 가지이다.

[표 5] FGI 여성과 안전 소주제 질문

소주제	세부 질문
여성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는가?

참여자들은 먼저 한국 사회의 전반적 안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음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안전에 대해 토론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소그룹 토론 결과에 대한 워드클라우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여성과 안전 워드클라우드 결과

워드클라우드에 따르면, 여성과 안전 소주제 토론에서 가장 큰 언급 빈도를 보이는 ‘여성’, ‘여자’, ‘남자’ 다음으로 부각된 주요 키워드는 ‘상황’, ‘나라’, ‘범죄’, ‘치안’, ‘사회’이다. 상기한 상위 6위의 키워드보다는 빈도가 낮지만 안전 주제와 관련해 빈도가 높게 나타난 순으로 키워드를 제시하면, ‘우리나라’, ‘한국’, ‘문제’, ‘서울’, ‘남성’, ‘사건’(상위 10위), ‘기사’, ‘뉴스’, ‘친구’, ‘말씀’, ‘차별’, ‘비교’가 주목된다. 이 외 상위 19위 키워드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주목되는 키워드는 ‘지방’, ‘옛날’, ‘요즘’, ‘세대’, ‘경제’, ‘개인’, ‘갈등’, ‘엄마’, ‘안전’, ‘피해자’, ‘경험’, ‘당한’, ‘일상’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상위 19위 키워드와 관련해서 실제 발언을 분석한다.

1 한국 사회 치안

우선 발언에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여성, 여자, 남자, 남성을 제외하고 빈도가 높은 ‘범죄’, ‘치안’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 치안과 여성 집단의 안전에 대해 차별화된 평가를 내렸다. 한국 사회의 안전을 5점 만점에 얼마로 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평균 3.3점이라 대답했다.

별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2점 정도.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에는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따로 살아서 지방도 왔다 갔다. 서울이랑 같이 하는 편인데 정말 지방은 가로등도 없고 심지어 경찰서가 없어서 자율 방법대라고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놓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있고 되게 보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늦게 귀가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거나 좀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여성이 한국 사회에 따라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참여자 X)

일단 저는 별점을 주면 3점 정도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저도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고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CCTV가 잘 돼 있어가지고 범죄율도 많이 내려가는. 그런 게 좀 약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지나다 보면서 세월호라던가 최근 침수라던가 이런 게 언제 저한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케어(care)해 줄 수 있는 나라, 정부도 요즘에는 약간 스테이블(stable)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에서 큰 사건을 제가 이렇게 당했을 때 이걸 누구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참여자 B)

4점이요. 일단 타 다른 나라보다 범죄율이 좀 적고요 적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분단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경제든지 어떤 경제든 정치든 흔들리는 그런 특이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고요 그게 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또 그래도 범죄율은 우리나라가 안전하니까요. (참여자 R)

2 여성의 안전

사회 전반적 치안과 달리, 여성 집단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냥 항상 밤만 되면 집에 오는 길이 무섭잖아요. 어두워서 약간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그런 일상 상황에서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참가자 H)

저도 마찬가지로 밤만 되면 항상 불안한 게 있고. 그리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진짜 많이 확 와 닿았던 게 남자인 친구랑 얘기할 때 귀신이 사람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전 정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람을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완전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참가자 F)

요즘 SNS 같은 것도 봐도 되게 갈라치기가 요즘 되게 심하잖아요. 여자와 남자가 연예인들이나 여성분들 약간 좀 몸에 좋으신 분들이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놓고 그 댓글들을 보면 되게 약간 성희롱적인 발언이 되게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도 이런 댓글들은 좀 선을 넘었다 하는데 그런 댓글들은 물론 이제 이런 댓글 삭제해라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댓글을 딱 보면 그걸로 항상 너무 팬이다. 여자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여성, 남성을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생태를 보면서 좀 힘들구나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 X)

사회 전반의 치안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인식과 관련된 ‘서울’과 ‘지방’, ‘옛날’과 ‘요즘’, ‘세대’와 같은 키워드도 눈에 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서울보다 열악한 지방의 치안을 지적했고 참여자에 따라서는 사회 전반의 치안에 대한 점수를 제시할 때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기도 했다.

서울 전체는 서울 전체 기준으로 보면 2.5점. 서울은 서울도 지역마다 좀 차이 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강남 쪽인가 그쪽은 그래도 밤에 치안은 많이 좋은 편인데 뭐라고 해야 돼 중구였나 아니면 그래도 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가보면 이게 같은 서울이 맞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치안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가로등 자체도 많이 없는 편이고요 서

울도 이런 데 지방은 솔직히 더 격세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0.5점이랑은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참여자 W)

저도 지방이랑 수도 이런 걸 다르게 봐야 생각하는데 지방을 다 포함해서 저는 대한민국 통계를 내면 2.0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은 좀 수도권 특히 인프라도 발달되어 있는 취업에 속하다 보니까 한 2.5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T)

여성과 안전 소주제 토론 워드클라우드에서 주목되는 ‘사건’, ‘차별’, ‘기사’, ‘뉴스’, ‘갈등’, ‘피해자’, ‘차별’, ‘피해자’, ‘갈등’, ‘당한’, ‘친구’, ‘안전’, ‘경험’ 등 키워드들은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불안전을 평가하는 논거, 사례 등에서 다양하게 등장했다.

참여자들은 최근 뉴스,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건 및 젠더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해 겪는 차별적 경험, 피해자로서의 경험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광범하게 공유되었다. 친구 혹은 스스로 당한 경험과 최근 사회적 사건, 현상에 대해서는 특히 20대 소그룹 토론에서 민감하게 다뤄졌다.

근데 저는 성범죄는 사실 연령에 상관없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가해자들이 예쁜 여자를 선호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돼도 그냥 여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분명히 세대별로 좀 더 특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참가자 G)

저는 범죄의 표적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세대별로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래도 40대 여성을 볼 때보다 20대 여성을 볼 때 ‘피해자가 잘못된 거야.’ 라는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옷차림이 문제야’ 약간 20대들이 아무래도 40대들보다는 뭔가 노출이 있는 옷을 즐기거나 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있어서 시선이 좀 다르게 갈 때는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참가자 I)

오늘 뉴스 기사 아침에 봤는데 20대 역무원분이 살해당했다는 기사더라고요 그게 지금 진위를 보니까 살해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몰카를 찍었었는데 그걸로 직위 해제를 당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양심이 생겨서 그런 범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 사실 남자들은 몰카 특히 그런 걱정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진짜 뭔가 범죄도 점점 더

되게 교묘하게 바뀌어져 가고 엄청 많이 안타깝고 강남역 살인사건이 2015년인가? 뭔가 크게 바뀌어 가지 않는 것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가자 Y)

저는 편의점 알바를 직접 했었는데요. 제가 오후 알바였고 야간하고 저랑 교대하시는 분이 30대 중반 정도의 건장한 남자 분이셨어요. 근데 정말 편의점 알바라는 게 진상들을 많이 만났는데 50대 정도 되는 노인들이 와서 계산을 하지도 않고 막 엄청 담아서 계산달라는 말도 않고 그냥 툭 던져 놔요 그러면 카운터를 다 가져와야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안 먹는다고 샌드위치를 그렇게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교대를 하고 창고 안에서 물건 정리를 조금 하고 있었고 야간 분이 카운터를 보고 계셨는데 다시 오신 거예요. 그 남성분이 비닐봉투를 사야 되는데 이제 안 사면 불법인데 그냥 주라고 실랑이가 나는데 그 분한테는 그 남성분 야간을 하시는 분이 강경하게 안 된다 물건을 안 사면은 못 준다고 하니까 그냥 깨갱 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과연 저런 남성분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저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되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참여자 X)

저 좀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을 겪어서 강남역에서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판교역까지 진짜 이유도 없이 그냥 저는 출근길이었고 출근길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헬레벌떡 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제 배를 주먹으로 친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가다가 실수로 부딪혔다는 거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때린 거를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알잖아요. 근데 그 순간 진짜 너무 화가 나고 그랬는데 이게 나는 진짜 아무 잘못이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구나 하니까 좀 되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 저는 당장 출근길 상황이 제가 건장한 남자였으면 진짜 밀도 끝도 없이 지하철 타러 가고 있는데 강남역에서 그랬을까 싶은 거죠. 그것도 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옆학교가 남중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리가 가까우니까 같은 정류장을 썼었는데 고등학생들은 좀 뺑뺑이다 보니까 멀리서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버스를 타고 오다가 옆 학교 중학생이 제 친구 치마 속을 찍다가 걸려서 잡은 거예요. 개를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경찰 신고 이런 걸 하지 않았고 학교 측에다가 알렸는데 그래서 개가 어떻게 됐대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멀쩡히 잘 다니고 있다. 뭐 별다른 징계 없이 그런 거 듣고서도 확실히 여자가 살기에는 좋은 나라는 아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참여자 V)

작년 9월이었는데 어떤 50대 남성분이 편의점 알바생한테 마스크 쓰지 않은 채로 담배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주지는 않았죠.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근데 그 50대 남자가 그 알바생이 뺨을 가격한 사건이 있긴 했었어요. 그걸 보고 그냥 든 생각이 알바생이 만약에 마동석 같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냥 남자였더라도 그렇게 손이 쉽게 나갔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거는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였을 거예요. 지역도 잘 기억은 안나지만요. 여성 버스 기사 분이었는데 어찌다 러시 현상 아시죠 차가 막 밀려들어서 그런 현상 때문에 버스 정류장이 좀 늦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그 기사한테 정말 심각하게 욕을 많이 해서 그 기사가 울면서 결국 운전을 못하겠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 그냥 버스 기사분이 그냥 아저씨였으면 같이 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참여자 W)

30-40대 소그룹에서도 다양한 직간접적 경험이 논의되며 일상에서의 성폭력적, 성차별적 상황이 공유되었고, 특히 딸을 가진 부모의 경우 양육 및 인식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이뤄졌다.

어렸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여행을 다 같이 가는데 엉덩이를 만지고 근데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더라고요. 중학생이었을 때 그리고 막 초등학교 때 컴퓨터학원 다녔는데 그 선생님이 계속 이쪽을 그렇게 만졌어요. 브레지어라인을 근데 그때는 80년대니까 엄마한테 말해도 별로 그런 게 없었고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은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정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는 친구도 못하고 그냥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6년을 보냈는데 지금 저희 동네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남초잖아요. 여자친구가 이제 하나 있는데 관장 아니야 관장 밑에 선생님이 여자 애가 이렇게 발을 보고 있었는데 네 발가락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참가자 N)

제가 좀 놀란 게 생각보다, 뉴스 공익 광고에서 가정폭력 같은 거 나오잖아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그 얘기를 주변에서 쉬쉬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 사람이 가정폭력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런데 은근히 가끔씩 들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정폭력이 대체로 남편분한테 맞는 여성분들이 케이스인데 그런데 그게 외부로 알려지기에는 본인도 손해고 자녀분들도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알려지기가 뭐하니까 그냥 쉬쉬하면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참가자 C)

굉장히 힘든 부분에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고착이 되어 있어서 보면 여자분들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순응해서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이거 어차피 이래서 안 돼' 라는 부분도 되게 많고. 실제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재는 물을 흐린다; 이런 식으로 매도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인 치안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술이나 이런 것에 되게 관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심신미약이나 이런 걸 왜 저거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녁에 퇴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성추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목격하기도 하고. 또 그것 이외에도 조직 안에서 어떤 여자들을 좀 강제로 배제를 하면서 어울리는 그런 또래 문화 같은 그런 집단 문화가 있을 때 되게 쉽사리 배제되는 것들을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 여자들도 '원래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걸 좀 불편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좀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참가자 D)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는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낮이든 밤이든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딸이랑 이렇게 있고 요즘에는 다 번호키를 누르고 주차장에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집으로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문이 바로 닫히지는 않잖아요. 비밀번호에 막 갑자기 뛰어오는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희 너무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말씀한 대로 이제 보안실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막 도망을 갔었는데 이제 CCTV가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다는 거는 그 사고가 난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뭐가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너무 있다 보니까 무섭고 아무리 무슨 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지막에 우리 딸이 있고 어쨌든 운전 기사님도 남자고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실 저는 아이한테 검도를 가르치고 싶어도 남자애들도 많고 선생님도 남자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다 그런 데서 가까운 데서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남자들을 저도 모르게 잠재적인 다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참가자 M)

50-60대 소그룹에서는 개인의 안전과 관련해, 젊은 여성들 자신의 문제, 문화적 요인을 비판하는 논의도 이루어져 20대 소그룹에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 인식에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는 대조되었다.

요새 30대나 직장 이제 요새 막 뛰어든 젊은 여자분들은 차별당한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따름이에요. 이렇게 변한 것에 이렇게 갑자기 정말 애기 못 낳아서 쫓겨나고 첫날 밤에 처녀 아니라서 쫓겨나고 이런 건 상상도 하지 못할 거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는 옆에서 바로 지켜보고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요새 세대가 더 기가 막히게 쳐다보게 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좀 편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들만 돌이거든요. 요새 너무 젊은 여자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온 세계 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자 안전을 하게 하려면 남자 보고 조심해야죠. 당연히 남자도 요새 법적 조치가 잘 돼 있잖아요. 하지만 여자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나서 따라가서 부킹이 너무나 자유롭게 돼 있고 누군지 알고 쫓아가요. 그리고 밤에 늦게 다니고 술 먹고 그렇게 하고 옷을 너무나 노출되게 그러니까 여자 어머니들이 들으면 너무나 싫어할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근데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들만 막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 (참가자 R)

저도 한 20~30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때는 이제 남녀 차별이 좀 많이 심했죠. 거의 지금보다 그럴 때 같은 대학 졸업하고 와서 우리는 커피를 갖다가 타줘야 되고 그 시대는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도 요즘도 조금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조금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그렇게 딸한테도 물어보면 좀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조금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별 같은 게 성적인 차별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것도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매일 마스크에서 나와도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 나오니까 그게 조금 불안하고 조금 여성으로서 조금 그렇죠 (참가자 Q)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했던 70년대에는 그때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천지가 개벽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여자아이들이 죄송합니다만 여성들이 그렇게 불만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 얘기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옛날 요즘 저기 역사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내 눈앞에서 보는 이 현실이 너무 빨리 바뀌어 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딸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안 하겠죠. 딸이 없으니까 아들의 시각이고 또 이제 원치 않아도 시어머니가 된 사람으로 하고 오는지 정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참여자 P)

제3절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소주제 토론 또한 인간안보 수준에서 안보, 평화를 다룬다. 여성들의 자아실현,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소주제 토론을 통해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삶의 질, 사회적 인정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했다. 외부로부터 폭력, 위협에 대한 안전이 첫 번째 소주제였다면, 두 번째 소주제는 사회경제적 안정을 포함해 개인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의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탐색한다. 인간안보의 주요 구성요소인 ‘결핍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 want)를 포함해 사회적 인정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한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조적 조건들과 연관된다.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와 결과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평등, 공정, 정의로운가, 스스로의 일 혹은 가정에 만족하는가, 한국 사회에 구조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 및 그를 넘어서는 사회적 실현의 차원에서 여성이 어떤 차별화된 경험, 인식을 보이는가를 탐색했다. 자아실현 및 사회적 인정과 관련해 어떤 젠더화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는 유엔 WPS 의제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여성들의 관점에서 안보, 평화구축의 문제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보인다.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소주제 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표 6]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소주제 질문

소주제	세부 질문
여성과 일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회가 평등, 공정,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 • 현재 자신의 일/가정에 만족하는가? • 여성으로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그림 3]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워드클라우드 결과

워드클라우드 결과, 여성과 일터/가정 소주제 그룹토론에서 가장 큰 빈도를 보이는 ‘여자’, ‘엄마’ 다음으로 부각된 키워드는 ‘남자’, ‘남편’, ‘어머니’, ‘사회’, ‘회사’, ‘차별’, ‘여성’, ‘가정’, ‘직장’, ‘상황’, ‘노력’ 순이다. 일터/가정 관련 키워드에서는 ‘엄마’, ‘어머니’, ‘가정’이 ‘회사’, ‘직장’보다 좀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⁴⁾

가정과 연관된 상위 20위 키워드로는 ‘엄마’, ‘남편’, ‘어머니’, ‘가정’, ‘아빠’, ‘집안 일’, ‘아버지’, ‘결혼’, ‘육아’, ‘부모님’, ‘시어머니’, ‘아버님’, ‘이혼’이 주목된다. 한편 일터와 관련된 키워드로는, 상위 20위 내 ‘회사’, ‘직장’, ‘준비’, ‘능력’, ‘전공’, ‘조직’, ‘전공’, ‘공무원’, ‘공부’, ‘학교’가 주목된다.

한편 소주제의 쟁점인 한국 사회의 평등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사회’, ‘차별’, ‘노력’ 다음으로 ‘문제’, ‘불만’, ‘공정’, ‘평등’이 상위 20위 내 키워드가 눈에 띈다. 그 외 상위 20위 키워드로는 ‘상황’, ‘수도’, ‘문제’, ‘요즘’, ‘한국’, ‘세대’ 등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성과 일터/가정에서의 평등 소주제 토론을 분석한다.

4) ‘엄마’(49), ‘어머니’(36), ‘가정’(20)의 빈도가 ‘회사’(29), ‘직장’(19)보다 높은 빈도를 보인다.

1 한국 사회 평등, 공정, 정의 평가

한국 사회의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교육이나 법제도적 차원에서 차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회, 결과의 평등 면에서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 사회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평가는 젠더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계층, 이주 배경, 장애, 세대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 비판도 포함했다.

채용공고 같은데 보면 명시는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에게 가점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실제로 인사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싶어하지 않아해요. 우리 집단에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일을 할 때도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우리는 막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그전에도 그만큼 요구를 하기도 조금 뭐한 거예요. 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일을 좀 요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솔직히 인사팀에서 그거를 가점은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집단에 별로 그분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뽑지도 않고. 그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냥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예전에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이게 스타트부터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이. 물론 그게 금전적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유아교육 기관에서부터 이게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못한 게 아닌가. 아예 받을 못 붙이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적으로도요. (참여자 A)

공정하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발전되는 그런 아까 자유나 여성의 인권 문제하고는 또 다르게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어서 아직 그거는 많이 그렇게 아까 뭐 4점, 3.5점 그렇게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R)

아이들한테는 평등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자애들이 더 세요. 요즘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맞아요. 요즘 막 예전에는 남자애들도 요즘에는 여자애들이 남자를 괴롭히고 여자애들 힘도 세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공부도 잘하는 게 여자애고 그런 면에

서 여자들이 더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공부 능력이라든지이런 거 더 잘해요. 여자애들은 잘하는 애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나 면에서 평등은 더 좋아졌죠. 그거는 이제 더 여자들이 잘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림 그런 거를 취직을 결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 기득권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걸 젊은 사람들이 좀 못 따라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등하게 이제 되는 과정이긴 한데 공정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멀리 있는 거 같다. 아직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되고는 있는데요. (참가자 S)

공정, 정의를 위한 사회적 해결 노력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거나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되었다. 한편 사회 전반적으로 능력주의가 부각되면서 기존의 (젠더)불평등에 대한 교정 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정의로우려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남녀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9급 공무원은 여자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남자들은 지원을 많이 안 해서 오히려 남자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낮은 점수의 남자들이 되게 많이 합격이 된다 그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놓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걸 평등을 위해서 하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삶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발생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학교에서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경제적인 부분은 솔직히 다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별 노력 안 하고 그냥 지원금 받아서 그냥 그냥 생활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약간 게으른,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퍼주는 거는 솔직히 그런 복지 정책이 저는 조금 불만이에요. (참여자 E)

아직까지 공정이나 정의롭다고는 확실히 말도 못하겠고. 어떤 게 또 공정이고 정의인 지도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경찰을 뽑을 때 여자 포션을 좀 높였다고 해서 또 부작용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정을 위해서 이렇게 뽑았지만 부작용도 있었고. 근데 그건 둘

째 치고 요즘에는 좀 능력은 좀 인정받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할 때. 예전에는 여자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엄마세대나. 그래서 가정주부만 했었지만 요즘에는 많이 자기가 개발하고 하면서 그런 커리어를 인정받을 때. 남자랑 여자랑 둘이 있었을 때 예전에는 남자를 그냥 임원을 만약 뽑은 상태였다면 요즘에는 기혼자라도 능력만 되면 요즘 많이 뽑는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고 주위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요즘에는 많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젠더를 떠나서요. (참가자 B)

2 일터/가정에서의 젠더 불평등

참여자들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가정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직장에서의 자아실현을 포괄하며, 이를 위한 평등하고 공정한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 공동 인식을 보였다. 소그룹 토론에서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젠더 불평등이 크지는 않지만 조직 문화, 승진 등 자기 성취의 측면에서 일터 내 차별, 불공정이 크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20대 소그룹이 대다수 일/가정 중 일, 경제적 자립에 대한 선호를 드러냈다면, 30-40대 소그룹은 어느 정도 정착한 사회생활 경험에 입각해 직장 내 구조적 젠더 불평등의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저는 일을 선택할 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그 윗세대를 통해서 경제권을 준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루트는 계속 마련할 것 같아요. (참여자 I)

저는 결혼을 한 안 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완전 일 쪽으로. (참여자 H)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물론 어떤 굉장히 성과가 명확한 세일즈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그런 게 아예 수치로 딱 보이니까 '저 사람이 잘 하니까 저 사람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합당한 보장을 주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한테 요구할 때 그 개인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의 실력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리고 실제로 같은 조직 안에 있을 때 다 역할이 다른데 단지 이 사람이 조금 더, 우리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재는 노력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주어진 게 같다는 전제조건 하에 애가 노력을 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똑같지 않고 그리고 메리트에 차등을 두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자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남자들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동등한 자리에 있을 때. 물론 이 사람도 훌륭하고 이 사람도 훌륭하고 다 능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저는 오히려 남성분한테 조금 더 많은 메리트를 주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물론 여자분들도 되게 능력 많고 특히나 정부 조직 같은 데 저는 약간 공공부문에서 일을 많이 했어서. 평등하다기보다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그런 걸 평가하는 사람들은 일괄적인 것 외에도 본인들의 아무래도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각자 평가를 받는 기준이 그렇게 객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늘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지만 똑같은 스펙이었을 때 여자들이 조금 더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조금 달라지는 게 얘기 같기는 한데 저는 여자가 한 80% 정도 되는 곳에 일을 했어요. 남자들이 여자들 중에 좀 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너무 재밌는 건 힘든 일이 있을 땐 남자부터 찾아야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남자를 먼저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승진이 빨라져요. 근데 그거를 여자들도 수긍해요. 재네 힘들게 했으니까 그런 게 차별이라면 차별인 거 같아요. ... 제가 여자들이 많은 회사에서 남자들이 조금 더 진급이 빨라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재밌는 건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모습을 이기고자 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좀 그런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근데 이런 것이 가능 하려면 일단 여성이라는 여자가 절대적으로 수가 강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여자가 옆으로는 돼야 된다 이런 식 그게 좀 기초적이고 되게 조금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절대적인 수가 받침이 되면 그런 것도 좀 바뀌려고 하고 인지하고 조금 노력이 나오면서 좀 상황도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 J)

저는 당장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사원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한 500명이 넘어가니까 적어도 팀장 급 이상이나 임원들을 보면 정말 저희 여성분들이 한 두 분 계시나?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막 ESG 경영이다. 어쨌든 해가지고 국가에서

도 환경 친화적인 기업 혹은 여성 이사회 임원 비율이 일정 이상인 기업 이런 것들을 미뤄줘서 굉장히 회사 자체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저희 회사가 좀 높은 등급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다섯 분이 채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당장 채용만 가더라도 신입사원 사진들 막 올라오는 거 보면 다 남자 거진 경우도 되게 많고 저는 채용이 평등하다 기업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는 것 자체가 아직 제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갈 길이 너무 멀다고 생각해요. (참가자 V)

가정과 관련해서 20대 소그룹은 대다수가 가정 내 부모님 간 불평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반면 30-40대 소그룹의 경우, 특히 육아 및 가사를 전담하는 가정 주부들이 가정 내 역할 분담에 대한 불평등, 스스로 자존감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아이 둘까지 있었을 때는 오로지 가사랑 육아는 제 일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생기니까 이게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전 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힘들다고 얘기도 못하고 '당연히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해서 저 혼자 끌어안으려고 했다가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움을 청했죠 신랑한테. 지금은 그래서 가사 분담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이 이걸 하나 했으면 '나는 잘해, 나는 되게 뿌듯해. 이런 아빠가 어딴어?' 이런 자긍심까지 갖는. 나는 맨날 그걸 하는 일인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돼, 여자가 일을 만약에 나가서 300 이상 벌어오지 않을 거면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직접적인,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 A)

지금 생활에 굉장히 불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저도 아이들이 10살 이하고 때문에 엄마의 케어가 필요하고 만약에 가정에 꼭 내가 경제력을 뭔가 그걸 보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에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독박 육아라든지 뭐가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제 남편한테 이제 약간 싸움에 계기가 되기도 해요. 솔직히 제가 더 남편보다 가방 끈이 길고 학벌도 밀리지 않는데 남편한테 절대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그렇게 독박육아가 싫고 힘들면 네가 나가서 나만큼 벌어서 그럴 수 있으면 내가 집에서 일할게 할 때 너무 막 열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애를 낳고 싶어 10년 동안 경력 단절로 됐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무

지금 못 버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케어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런 파트타임 때문에 아마 가실 거예요. 명문대를 나와도 갈 수 있는 게 파트타임으로 시간이나까 정말 마트 캐셔 같은 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열받음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러 공부했지 내가 왜 했지 딸 키워서 그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가자 M)

저는 이제 주변에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근데 다 놀아요. 경단녀예요. 아까워요. 유학 파 엄청 좋은 학교라는 애들도 있고 SKY도 많고 근데 재취업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저희 나이가 있어 나이가 마흔 중반에 가면은 그거를 다시 들어간다는 건 되게 운이예요. 그 회사에서 불러줘서 가지 않으면 출퇴근도 늦고 저희 때가 나이가 애들이 초등학교 이렇잖아요. 케어가 필요해 고등학생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가 봐서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무 늦게까지 일할 수 없고 이게 되게 한 가지인데 육아랑 일이랑 하나로 느껴야 그러니까 막 화풀이 좋은데 막 오아시스에서 일하고 마트에서 일하고 현대 나왔는데 왜 마트에서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갈 때가 막상 그 시간하고 모든 일을 두 개 갈게 하는 건 힘든 거 같아요. 근데 저는 학원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그게 그때는 되게 싫었는데 왜냐하면 늦게까지 이려고 이러니까 되게 싫었는데 그거를 발판 삼아 지금은 저는 파트 타임으로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풀에서는 만족이예요. 왜냐하면 저 비싼 학벌 엄마들 중에서는 너무나도 편찮고 저는 파트 타임으로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이게 가능해서 저는 그 와중에서는 그녀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근데 이렇게 맞네 나는 그래도 이거를 할 수 있네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자의 풀에서 봤을 때는 남자애들보다 확실히 같은 학교를 나온 남자친구 애들보다는 확실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맞는 거 같아요. 학비가 아깝다고 요즘에 그러는 거 같아요. (참여자 N)

50-60대 소그룹의 경우에는 가사에만 전념할 때 스스로 자립적 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을 공유하거나 남녀의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기존의 관습, 교육의 경험을 나누고 비판을 제기했다.

그래서 주부로 하느냐 하는 그게 좀 됐어요. 시간이 주부로 뭘 하냐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여성으로서 남성과 비교를 해서 어떠냐 했을 때는 제가 조금 기질이 좀 나중

에 알았는데 남성적인 기술이 많은가 봐요 아무리 집안일을 해도 보람을 못 느끼겠더라고요요 저는 네 그래서 제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는 생각했는데 문제는 저희 세대가 제 체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여성적인 주부적인 일이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런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아이를 무조건 잘 해야 되고 모성애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는 알죠. 만약에 그러니까는 그 특색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들도 집에서 살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림 예쁜 거 좋아하고 막 꾸미고 애들도 키우고 앞으로 가는 사회는 또 여자 여자가 배포 좋게 사업도 잘하고 이런 사람은 거꾸로 살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사회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잘하는 쪽을 개발을 해야지 어떤 사회에서 주어진 어떤 역할적으로는 이제는 그거는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R)

저는 제 남편이 막내라 가지고 그래도 어머니랑 한 몇 년 살았거든요. 이제 어머니 연세가 있고 이러니까 나는 죽을 때 또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사이클이 또 안 맞더라고요 되게 조금 그리고 또 고지식 한 게 있어서 조금 안 맞기는 했어요. 남편이 그럼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화를 내고 그러면 어머니 편을 들어주고 그랬는데 가거나 욕한다고 또 같이 싸우고 못 하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 같이 사는 동안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욕아 그러면 나는 그냥 어머니 사는 거 괜찮아서 처음에 나 잘못하고 모르고 살았는데 괜찮다 생각했는데 진짜 살아보니까 사는 게 아니구나 싶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도 조금 되게 성격이 좀 고지식하고 아버님하고 이제 좀 그런 면을 남편도 되게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 성격을 다 닮아가지고 되게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별로 저 처음에 사는 동안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 나오기로 했는데 아니었어요. (참여자 Q)

저는 이제 남편하고 20대 중반에 애를 그냥 저는 연애할 생각이어서 이사하고 그냥 결혼할 생각 없었어요. 그때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그때는 제가 친구 중에 제일 먼저 결혼했거든요. 아버님이 암이 위독하셔서가지고 결혼을 서두른 거예요. 근데 결혼 날짜를 잡아 났는데 돌아가셔서가지고 어머니가 혼자 되셨는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어머니 아버님 나이가 차이가 열 몇 살 정도 있어서 살면서 아버님이 되게 가부장적이고 어머니는 순종적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집안이었어요. 되게 가부장적으로 그래서 그런 집안인데 혼자 그때 어머니 나이가 56세였어요. 56살인데 지금 제가 몇 년 뒤에 10살 그때는 더 혼자 살 것 같은데 혼자 못 살고 돌아가시고 결국 같이 살게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20년 동안 정말 왜냐하면 저희 애가 재수할 때 돌아갔었으니까 딱 20년 살았거든요. 정말 사사건건 모든 게 다 안 맞고 다 부딪히고 거기다가 이제 신랑이 설거지하고 나오면 내가 할게 하고 엄마가 하고 이런 식으로 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는 불만이 쌓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0년이 이제 지나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신랑이 도와주면서 같이 하게 되니까 저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만약에 제가 이제 혼자 가진다면 저는 당연히 혼자 살 것이고 같이 사는 거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모습이 좀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제야 말씀하신 걸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은근 은연중에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저렇게 노력은 하는데 그게 몸에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자 S)

제4절

여성과 한반도 평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여성과 한반도 평화 소주제 토론은 한반도 평화·통합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선호를 다루며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선 두 가지 소주제 토론이 ‘공포로부터 자유’, ‘결핍으로부터 자유’ 및 사회적 인정, 가치의 욕구를 포괄하는 인간안보 차원에서 여성 개인 혹은 집단적 평가를 다뤘다면, 마지막 소주제는 한반도 평화·통합을 둘러싼 위협 요인, 중장기 관점의 한반도 미래상을 다룸으로써 국가, 국제사회 수준의 안보, 평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성과 한반도 평화 소주제 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표 7] 여성과 한반도 평화 소주제 질문

소주제	세부 질문
여성과 한반도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은? • 30-40년 뒤 한반도의 가능한 미래, 바라는 미래는 무엇인가? • 회피하고 싶은 미래는 무엇인가?



[그림 4] 여성과 한반도 평화 워드클라우드 결과

워드클라우드 결과, 여성과 한반도 평화 소주제 토론에서 가장 큰 빈도를 보이는 키워드는 ‘북한’, ‘문제’, ‘전쟁’이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통일’, ‘우리나라’, ‘나라’(상위 5위)에 이어 ‘경제’, ‘상황’, ‘중국’, ‘사회’, ‘세대’(상위 10위)이다. 그 외 상위 20위에는 ‘문화’, ‘평화’, ‘교류’, ‘유지’, ‘국가’, ‘수도’, ‘미국’, ‘한반도’, ‘러시아’, ‘관계’, ‘위협’, ‘정치’, ‘갈등’, ‘말씀’ 순으로 키워드가 나타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 요인, 회피미래와 관련된 상위 20위 내에서 주목되는 키워드는 ‘북한’, ‘전쟁’, ‘중국’이다. 한반도 미래 제언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북한’, ‘통일’, ‘경제’, ‘사회’, ‘세대’, ‘문화’, ‘평화’, ‘교류’, ‘유지’, ‘관계’, ‘정치’ 등이 주목된다. 한편 남북한이 아닌 공동의 정치통합체 단위를 의미할 수 있는 ‘한반도’, 관계를 나타내는 ‘남북한’에 비해 분단, 분립 현실을 드러내는 ‘북한’, ‘우리나라’, ‘한국’, ‘남한’이 더 많이 언급된다.⁵⁾ 주변국과 관련해서는 회피미래의 사례로 언급된 ‘중국’(북한과 중국의 밀착, 33)이 ‘미국’(23), ‘러시아’(21), ‘일본’(15)에 비해 빈도가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워드클라우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협 인식, 갈등 및 해결 방법과 관련해서는 젠더 갈등, 환경오염, 정치인들의 정쟁, 사회적 안전망 부재, 자살률 등 문제가 다양하게 지적되고 양보 증재를 통한 평화적 갈등해결 방식에 대한 선호들이 표출되었다.

상위 21위 키워드와 관련한 FGI 발언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위협 인식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에 대한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핵을 가진 북한, 혹은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이를 조장하는 정치부터 사회적 안전망 부재, 환경오염, 젠더갈등 등 다양한 위협 요인을 제시했다. 우선 키워드 ‘북한’은 한반도 평화·통합 소주제 토론에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재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등장했고 한반도 평화의 위협 요인으로도 다수 등장했다.

많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분단이 돼 있으니까. 항상 휴전이잖아요.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긴 한 거고.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핵인 것 같아요. 핵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북한이 특히 저렇게 김정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좋은 말로 배포가 크잖아요. 되게 당당하고 굉장히 배포가 큰데. 뭔가 저는 저 사람이 그동안 훈련이 되고 저게 성향일 수도 있고 단련되어 온 태도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뭔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게 또 가능하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이게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 지금 통일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이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핵 보유국 하면 우리나라도 여튼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저들이 핵가지고 장난을 하면 정말 한 나라가 아예 딱 없어질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진짜 무섭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어쨌든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외교적인 걸로든 뭘로든 저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없게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참여자 C)

5) ‘북한’(125), ‘우리나라’(59), ‘남한’(16), ‘한국’(16)이 ‘한반도’(21), ‘남북한’(11)에 비해 훨씬 빈도가 높게 언급된다.

당연히 저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북한 지도자요 그분이 이렇다 하면 불안하고 그분이 가만히 계시면서 갑자기 평안했다가 갑자기 또 막 이러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연평도에 한밤을 주시면 그렇죠 저 임신하고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때 그런 식으로 그분의 마음에 따라 대한민국과 북한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아빠 시대는 공산당은 다 나쁘다고 했다가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되면서 평화 분위기 갑자기 됐다가 정권에 딱 이랬다 저랬다 해서 이번에 전 대통령 때 이제 민주당이셨으니까 좀 괜찮겠구나 생각했는데 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때 약간 편안했던 것 같은데 아냐야 작년에는 불 안 했어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번에 또 정권이 또 바뀌었잖아요. 당연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시작이야 올해 이제 뭔가 하나 더 날아올 거다 그런 불안은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그들이 지금은 코로나하고 정신없을거야 그들도 의료 그리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거는 정신이 없어서 가만히 있나 이 끝나면 한 번 쏜나 그런 불안함은 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불안하고 그 미래를 추측할 수 없는데 통일이 된다고 해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 그분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실 건지 모르는 그 막연한 불안함이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N)

그래도 위협이 되는 집단은 북한이 아닐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북한이 언제 도발하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군가가 생각을 해서. ... 통일은 그냥 접고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저희는 저희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 E)

저도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태도에 따라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도 포용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A)

북한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비핵화는 고소하고 핵을 법제화한다고 이번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볼수록 비핵화는 진짜 멀어지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불안함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함.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자기들이 살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걸 이용할 수 있고 무

기를 사용해서 그냥 한국에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해서 계속 요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L)

한편 남북관계가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 악순환의 패턴을 갖는 이유에 대한 나름의 분석, 국제정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 한편, 국내정치적으로 양극화, 정치화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남북 관계가 그냥 북한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강대국들 간의 싸움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사실 그랬고. 그래서 이전 남한과 북한의 싸움이 아니라 되게 큰 체제 이념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단순히 너무 그냥 북한만 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되게 막 엄청 혐오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약간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단순히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한에서 항상 뒤편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경한 정책은 이제 남한에 사는 우리한테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다. (참여자 I)

글쎄, 저는 여태까지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이랑 동맹도 끈끈하고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도 6위인가 7위인가 했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쉽사리 전쟁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처럼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해외에 있다 보면 항상 남북한이 금방이라도 전쟁을 할 것처럼 막 뉴스를 하지만 정작 우리는 되게 안전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최근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70대 이상의 태극기부대. 변하지 않는 생각과. 무조건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만드는 빨갱이들. 그런 집단을 저는 오히려 안보에 되게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화되지도 않고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다 믿고. 어디에 휘둘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단이 저는. 변하지 않는 집단. 자기의 믿음이 되게 강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참여자 B)

정치에 관심이 정말 없이 살았는데 정말 너무 우리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저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제3의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응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를 보면서 정말 나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대통령의 가장 어쨌든 사회

가 공정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국민을 위협한 거잖아요. 나라를 나라 자체의 어떤 그걸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굉장히 응원했죠. 굉장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멋지게 맞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을 그냥 파탄으로 그냥 다 몰아넣은 것 같고 그 전쟁을 그냥 저희는 전쟁을 이렇게 겪은 세대는 아니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금의 세대이고 맨 처음에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 같은 세대이고 아이폰을 쓰며 이래서 굉장히 착한 일이라고 약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행동들 여성을 위협하고 무자비하게 하는 것들은 진짜 똑같더라고요.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달라졌어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를 잘 해야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 세계의 축들이 다 있잖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그래서 진짜 그렇고 사실은 제가 정말 공교롭게도 러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올해 저희 딸이 발레를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안 그랬으면 진짜 9월달에 입학할 하는 거였는데 2월달에 전쟁이 나서 이게 무산이 되니까 미뤄졌어요. 금방 끝난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환율이 지금 폭등해서 만약에 가려고 하면은 지금은 2배 그런 다음에 이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계획이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 삶의 영향을 세계 정세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치인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M)

사실 정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반응해 주니까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선동하고 우리나라의 세대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저 같은 사람 중에 전쟁은 와 닿지 않는 얘기고 외국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지 솔직히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괜찮아? 이런 얘기 한국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어차피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런 위험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씩 선동적으로 정치인들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가서 방송을 한번 틀어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북한 얘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이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결속을 하기 위해서 그 어느 일본 당에서 특히 그럴 때마다 건드리는 게 북한 얘기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특히 대선 같은 거 생기면 괜히 한번 북한 얘기를 꺼내서 선동하고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를 자극을 해요. 근데 일반 젊은 사람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는데 들은 거기에 또 반응을 해 주세요. 그쵸 그러니까 정치인이 계속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을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사람들이 그걸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평화를 지키는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인 거 같아요. (참여자 J)

저도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심리를 되게 조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근데 그거에 이 수단으로 북한을 사용한다고 느끼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태도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K)

가장 주목되는 것은 소그룹 토론들에서 북한에 대한 지적만큼이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해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북한 (핵), 남북관계, 전쟁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층적인 위협 요인들을 제시했다. 앞서 지적한대로 많은 쟁점을 정치화, 양극화하는 정치계에 대한 비판이 제시된 한편, 다양한 위협으로 사회적 안전망 부재, 높은 자살률, 낮은 출생률, 젠더 갈등, 환경오염 등이 논의되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잘 살게, 이제 이렇게 더불어 같이 그러니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내가 평화를 내가 잘 살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소외계층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경제가 아니라 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병원에서 이제 아이가 간호하고 있는데 그때가 2000년 한 5~6년 그때쯤 됐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목동 아파트에서 지진이 감지됐다는 얘기는 뉴스에 나왔었고 그 전해인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지하철 소식을 듣고 목동에서 저기 지진이 감지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하나도 내가 동요가 안 돼 왜냐하면 같이 죽는데 지진이 나고 지진이 대구 지하철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장애인인데 다른 사람들 너무 잘 살아 그래서 그냥 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날 지진 뉴스를 딱 들으면서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다 같이 죽는데 뭐가 무서워 나만 죽는 거 아니고 여기 병원에 아픈 애들만 죽는 거 다 죽는 거는 괜찮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소외계층을 돌봐야 되겠구나 ... 소외계층을 잘 돌보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석자 P)

남북한의 관계에 관한 거는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어느 날 코로나 시대에 요새 자살 얘기가 잘 안 나오길래 내가 뉴스를 안 봐서 그런지 코로나 3년 동안의 자살률은 어땠을까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역대 전적의 자살률을 봤더니 흥미로운 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자살률이 밑이었어요. 그리고 자살률 1, 2, 3, 4, 5, 10위까지가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97년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점

올라가더니 사실 97년이면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게 된 때거든요. 그때부터 10위 안에 들기 시작하고 점점 그래서 1위를 쳤어요. 근데 그때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사람 있던 선진국들은 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얘기부터 1위부터 10위에 있는 나라는 우크라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1등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못 사는 나라들이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 그래 그걸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소외랑 단절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는 너무 관심이 있어서 다 관심이 있고 서로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직접 하는 게 상관안하고 너 왜 집에 안 가니 이런 거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전부 독립해서 나갔잖아요. 개네들은 어디 가서 친구를 찾냐면 당근 마켓에서 오늘 저녁 먹을 사람 3명 ... (참여자 R)

뉴스에서 보니까 또 2050년 100명이 보니까 인구가 완전히 또 많이 우리 줄어들잖아요 소멸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노인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 그거 대고 인구도 적고 이제 키우기 힘들니까 애들 안 낳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고민을 좀 많이 지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 아니 예전보다는 많이 좀 그래도 좋아지는 했더라고 저희 때는 아기 낳으면 돈을 준다거나 그런 거 5세까지 10만 원 준다거나 없잖아요. ...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해주는데도 내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니까 사교육비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나라가 사교육비 문제가 조금 좀 나라에서 어떻게 좀 해결 수 있으면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사교육비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참여자 Q)

근데 제가 최근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70대 이상의 태극기부대. 변하지 않는 생각과. 무조건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만드는 빨갱이들. 그런 집단을 저는 오히려 안보에 되게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화되지도 않고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다 믿고. 어디에 휘둘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단이 저는. 변하지 않는 집단. 자기의 믿음이 되게 강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참가자 B)

저는 남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눈으로 봐도 정말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이고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녀 갈라치기가 저는 되게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렇게 갈등을 계속 겪고 뭔가 그렇게 균열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조금 위

힘한 신호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 어렸을 때부터 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좀 많이 손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Y)

환경오염 요즘은 아무래도 다른 것도 중요한 것도 맞지만 어찌 되었든 환경 오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전쟁이 난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디어 매체 아니면 세계에서 통화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해도 결국에는 저는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빨리 크게 대두될 문제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제가 재활용하는 버릴 때도 많은 것들이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세네 번은 이렇게 포대 자료가 바뀌는데 이것들이 대체 어디로 가기 다 등 수도 많은데 아파트 단지는 더 많고 이것들이 서울에만 몇 백 개 몇 천 개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는 몇만 개가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하면 저는 그것만 해도 되게 짹짹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10년 내로 아마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문제들을 다 제쳐 두더라도 환경 보호 그 부분에서는 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참여자 U)

2 한반도 중장기 가능미래, 선호미래, 회피미래

한반도 가능미래와 관련해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회의적 입장, 현상유지 태도가 두드러졌다. 이미 남북한이 일종의 별개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여전히 민족 정체성에 입각해 통일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입장도 존재했다.

이대로 계속 만약에 계속 살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비슷하게 할 것 같고 중간에 바뀌면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통일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된다고 해도 너무 된다고 해도 일단은 소득 격차부터 시작해서 문화 차이부터 시작해서 너무 통에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되고 원하지도 않는 것 같고 되더라도 뭔가 대통령을 누가 해야 되면 이런 문제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냥 중단된 채로 가지 않을까 통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참여자 S)

저는 3~40년 후에도 지금과 별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3~40년 후에 바뀔 거였으면은 지금이더라도 뭔가 징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지금이야 북한이 해고를 협박하고 총 쏘려고 포탄 던지고 이렇게 협박을 한다 하지만 30~40년 후에는 그런 거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정보전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딱히 뭐 지금이랑 관계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참여자 X)

저는 통일 관련해서는 통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질문 자체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일은 일단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통일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 통일을 해야 되냐 말하는 그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 북한은? 이런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게 누가 가져갈 건데라고 했을 때 전 이것만 따져봤을 때도 북한은 당연히 우리랑 같이 합쳐서 일단은 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 하다 못해 연방제라라도 저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사를 봤을 때 만약에 저희 나라가 통일을 한다는 전제하다면 2050년이 되면 저희 나라가 통일을 했을 때 그러면 1위가 미국이고 대한민국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거다 이렇게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일단 북한이 지금 개발이 많이 미흡한 상태인데 그 안에 있는 풍부한 자원 그리고 값싼 노동력 그리고 남한에 있는 IT 기술력이 합쳐진다면은 시너지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해 보더라도 일단 성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그게 너무 급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는 그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U)

저는 한국이랑 북한 관계도 문제지만 미국이랑 중국 패권 경쟁도 굉장히 뭔가 영향을 크게 미칠 거 같거든요. 그 제 생각에는 지금 북한에도 굉장히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해외 유학을 많이 가서 거기서 신문물을 많이 접하고 본인들의 나라 체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30~40년 후 북한이 저는 100%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중국에게 먹힐 수도 있고 (참여자 Y)

남북한 간 경계를 넘는 한반도 공동체적 통합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 이질성, 비대칭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후대로 갈수록 통합에 대한 비용, 부

담을 걱정하는 논의가 존재했고 정체성 측면에서도 동질성을 전제하지 않는 입장들이 제시되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그런 포스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아니라는 건 당연히 성인 돼서 알지만 그래도 북한 사람 공산당 이런 거는 얼굴이 빨갛지는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일이 되거나 뭔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당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사회가 너무 살기가 힘든데 통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남한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통일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그런 통합을 생각한다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문화적 교류 이렇게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나 케이팝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인 어떤 통합들을 시도를 하고 이념과 사상 이런 건 사실은 저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간에 해서 우리가 다들 어떤 이익보다는 저는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경제만 좀 같이 갔으면 경제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자유롭고 원활해지면서 조금 교류가 좀 원활해졌고 예전처럼 뭔가 북한의 관광도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좀 벽이 좀 허물어졌을 때 천천히 사회 통합이 됐으면 좋겠지 딱 갑자기 통일 너무 싫어요. (참여자 M)

일단 너무 지금 갭이 너무 크기도 하고 체제부터 해서 경제 상황까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저희 세대 때 이걸 시작하면 저희가 잃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되지도 않겠지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따로 각자 다른 나라처럼 그냥 그렇게 왕래를 하면서 사업 같은 거는 같이 하되 한 나라가 되는 거는 어렵다고 저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자 B)

저도 만약에 내일부터 딱 북한이랑 통일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또 우리 사회에서 남북 주민 간의 갈등이 엄청 클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북한은 남한보다는 좀 교육 수준이 많이 낮다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북한 사람들이 되게 힘든 일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급이 엄청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책들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문화적으로도 서로 사실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남으로 지냈으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류를 훨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일이 되기 전부터. (참여자 I)

남북한 공존과 관련해서는 현재 남한 내 탈북민들의 수용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 이주노동자들의 통합의 열악성 등을 고려하면서 향후 통합과 관련해 한국 사회가 고려해야 할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20대 소그룹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사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북한 분들과의 제가 갑자기 어울려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접하거나 해서 넘어온 새터민 분들하고도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만나보면 좀 가치관적으로 다른 점도 느낀 것도 있고. 학교에서 몇 분 뵈는 적도도 있어서 요즘 마스크에서 비춰지는 그분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우영우 드라마에 나왔던 경우도 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게 하나가 되자 라기보다는 융화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끼리의. 전쟁이 있고 없고 나라를 합치고 이것보다도 사실 한 나라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같은 걸 공유하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F)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수용하거나 포용하는 거에 되게 박해졌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아까 남녀 갈등도 얘기하셨고 세대 갈등도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까를 자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들어보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정말 극단적인 분들 말고는 다들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의견들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안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고 아까도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외국에서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이런 것도 좀 열린 마음으로 제도적으로도 뭐든 수용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자 V)

한편 한반도 미래에 대한 선호미래로는 일정한 사회, 경제, 문화적 교류의 지속, 접촉을 강조하는 한편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 통합이 가져올 혜택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발언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단계적, 점진적 과정을 강조하면서 남북한 간 사회문화적 교류 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해 다양한 제언들도 제시되었다.

저도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공산주의와 지금 민주주의가 너무 오랫동안 분단이 돼 있었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까지 하나가 되기에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가장 좋은 건 정말 경제적인 이익이 저는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어쨌든간 이렇게 철도가 개설이 되면 유라시아 쪽으로 이렇게 쪽 돌아서 저희도 유라시아 쪽으로 이렇게 횡단할 수가 있는 기차를 타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없는 천연자원 같은 것도 많고. 그쪽이 아무래도 노동력 같은 것도 싸고 그래서. 너무나도 안정화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누구나 알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익이 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정치적으로까지는 진짜 너무 이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전에 이게 될 수 있을지 안 될 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으로라도 서로 교류가 있고 경제적으로라도 뭔가 조금 통일이 됐으면. 그것도 너무 힘들고. 이미 저쪽은 사회주의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교류는 서서히 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C)

저는 근데 반대로 북한과 저희가 대결을 하고 통일을 위한 점진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일단 국가 차원에서부터 그런 남과 북이라는 용어 사용 이런 법적인 규제부터 일단 풀어야 되고 풀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저희가 북한 음식이나 북한의 물건 같은 걸 볼 때는 사람들이 그냥 보여주는 그런 건 그림으로만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펜팔 같은 거랑 조금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친구로 뭘 맺으면 택배 같은 걸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북한 쪽에서 즐겨 보는 K-pop 앨범이다든가 그런 것 우리의 음식이다든가 아니면 유행하고 있는 저희 나라의 음식을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북한 쪽에서는 북한에서 밖에 없는 음식들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즐겨 부르는 노래 이런 거를 서로 그런 문화 교류가 일어나면 또 공감대 형성 약간 조금 뒤탈까 우리는 약간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X)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홀 가듯이 서로 좀. 특히 젊은 층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생각이 더 유연하지 못하니까 젊은 층부터 교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바람이 있어요. ... 북한이 아무래도 자기들의 생활상을 공개하는 걸 되게 꺼려하잖아요. 뉴스도 엄청 제한적으로만 내보내니까. 그래서 그곳의 모습이 보이는 영상물은 아마 실현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펜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참가자 I)

북한사람들이랑 한민족이다라고 가장 느낄 때가 말이 통할 때거든요. 그래서 뭔가 북한 사람들이랑 펜팔을 해보고 싶어요. 일상을 좀 공유를 한다거나 정말 그냥 대화를 하

고 우리가 말이 통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 있으면 남이야라고만 생각하던 게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F)

경제적 교류를 다르게 생각하는 게 꼭 그 사람을 원조 내지는 뭔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알 수 없는 어떤 자원이라든지 함께 해볼 수 있는 개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사실 익산에서 출발한다 익산에 엄청 크게 써 있어요. 거기가 자기네 익산을 띄우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런던까지 얼마며 몇 키로라고 써 있어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북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평화적인 것들이 합의가 된다면 철도를 와서 왜 못 하겠어요. 경제적 교류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약간 유치하지만 저임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예전에 들은 바가 역사 연구 예를 들면 고구려 유물이라든지 이런 유물들이 평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같이 공동 연구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정치적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되고 그러니까 그런 학술적 교류 또 경제적 교류 그러니까 꼭 정치적을 뺀 뭘 가에 좀 좋은 교류들을 많이 하면 일방적인 우리만의 손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참여자 M)

저는 북한의 문화재가 그런 거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역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전에는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보존이 잘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문화재 관광. 만약 관광이 좀 위험하다고 한다면 콘텐트라도 방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H)

물론 교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존재했다. 남북관계에 내재한 불신에 기반해 관계 지속을 위한 노력보다 단절이 낫다는 선호도 표출되었다.

교류도 개성공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북한의 의지에 따라 끊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계가 저는 싫어요. 너무 저희가 북한만 바라보고 저 자세로 나가는 거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차라리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여자 E)

또한 사회경제문화적 교류협력 이전에 한반도 평화·통합을 위한 남북관계의 변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에 대한 의견도 첨부되었다.

저는 예전에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저희는 한 민족 같은 뿌리를 두었으니까 좀 같은 역사로 몽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지금 저희 지금 대한민국에 남한에서는 알 수 있는 유적지가 옛날로 돌아가는 백제나 신라 이쪽인데 저희가 고구려 쪽은 기적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쪽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쪽의 역사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먼저 북한 국민들에게 초대하기보다는 좀 저희가 먼저 가서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한한령이라고 우리나라 문화를 이제 문화가 중국 젊은이들이 선동한다는 그런 선동 패키지 때문에 케이팝에 대한 제재를 심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폐쇄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 문화를 무턱대고 전파하기보다는 그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좀 인식 개선을 한 다음에 차차 저희 문화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저희 식으로 이렇게 먼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T)

저는 교류도 북한이랑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좀 사이가 괜찮다고 할 때나 겨우 하지 정부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도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류를 얘기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저는 좀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되게 거부감을 갖고 그러는 게 좀 선거철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선전을 할 때 좀 북한에 쓸데없이 너무 자주 수면 위로 올리고 네거티브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세계 정서상 북한이 당장 말하고 싶은 거 아니면 저희 나라 도발은 가끔 해도 돈 달라고 도발을 해도 뭔가 직접적으로 핵을 터뜨린다 거나 그런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너무 크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막 빨갱이 어찌고 저찌고 이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더 거부감을 갖고 좀 싫어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통일을 하고 싶고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일단 좀 그런 네거티브한 계속 하는 거를 먼저 위해서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참여자 V)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회피미래와 관련해서는 압도적으로 (핵)전쟁, 소수의견으로 북중간 밀착이 지적되었다.

상상 가능한 최악의 미래는 핵무기를 쏘고 막 다 죽고 이런 건데. 그럴 거 같지는 않고. 근데 이게 조금만 갈등이 고조돼도 엄청 폐쇄적으로 변하잖아요. 남한 사회도. 그래서 이게 계속 갈등이 심화되는 것. 그게 가장 최악이 아닌가. 그리고 약간 저희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인 입장이 많지 않아서 농담처럼 우리가 적화 통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미디어에서도 가끔씩 하고 그냥 농담 조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오세요.'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날 텐데. 남한이 이긴다면 우리가 살아 있을까? 저는 사실 국가에 대해서도 별로 엄청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서 내가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전쟁을 하고 이기면 뭐 하지? 우리가 다 우리 삶이 망가져 있으면 그게 과연 우리가 이겼다고 좋은 건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어서 그게 통일을 위해서든 전쟁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I)

저도 전쟁하고 핵이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C)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전쟁이고 더 최악의 상황은 전쟁 이후에 중국이나 일본에 점령 당하는 거. 그게 제일 최악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전쟁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전쟁은 대리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작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 없이 우리가 다시 일제 시대에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참여자 D)

전쟁,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북한이 중국이 흡수해버리는 그러면은 차악이 될 거 같아요. (참여자 M)

제4장

결론: 젠더 평등과 한반도 평화구축

본 연구는 유엔 여성·평화·안보(WPS) 의제의 틀 하에서 서울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선호를 조사했다. 20-60대에 걸친 서울시 거주 여성들의 FGI(5그룹, 총 25명) 결과, 여성들은 개인 안전, 삶의 질, 평등, 공정 등 광범한 차원에서 평화를 정의하고 변화, 대응을 요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에게 한국은 더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점, 법제도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하는 일터(혹은 가정)에서의 젠더 간 불평등을 지적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인식과 미래의 평화, 통합을 위한 폭넓은 제안과 상상을 내놓았다. 첫 번째 여성과 일상의 안전 소주제의 ‘한국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 질문과 관련해 전체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의 안전을 5점 만점에 3.3점으로 매겼으나, 여성으로서 느끼는 안전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20대로 이뤄진 두 그룹의 안전에 대한 위협인식이 두드러졌고 연령에 관계 없이 대화 중에 자신이나 주변이 위험에 처했던 경험, 사회적 뉴스가 공유되었다.

두 번째 소주제 일터/가정에서의 평등에서는 ‘한국 사회가 평등, 공정,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자신의 일(가정)에 만족하는지’, ‘여성으로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는지’ 질문했는데 5060 그룹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부정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성으로서 느끼는 실제적 차별에 대한 응답에서는 연령별로 시대적 변화 및 생애주기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반영되었으나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젠더적 이분법에 따른 제약의 다양한 경험, 사례, 문제의식이 이야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주제 한반도 평화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0-40년 뒤 한반도의 가능한 미래, 바라는 미래상은 무엇인지’, ‘회피하고 싶은 미래는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평화의 가장 큰 적으로는 사회정치적 양극화, 군사적 대립, 북핵, 젠더 갈등, 교육, 언론, 기후변화, 자살률, 출생률, 소외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됐다. 중장기적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해선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다층적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관련 제안들이 토론되었다. 회피미래로는 대다수가 (핵)전쟁을 언급했고 남북관계의 단절에 따른 북중관계 밀착에 대한 소수의견이 있었다.

이번 FGI는 서울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보적 연구로 향후 지역 및 젠더를 확대하는 한편 질문지를 보완하는 등 방법론적 심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의 대화, 상호작용 과정으로부터 초점집단면접 결과는 지속가능한 평화 만들기를 위해서 평화가 얼마나 광범한 영역을 포괄하는, 상호 연계되는 개념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FGI가 끝나고 받은 사후 질문지에서 평화에 이르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개인의 안전, 삶의 질 보장, 평등한 기회,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방식, 군비경쟁 완화, 교육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은 개인의 안전(14명), 삶의 질(6명), 평등(5명), 정의(5명), 평화로운 갈등 해결(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상의 안전, 삶의 질 보장, 평등과 정의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평화의 중요한 조건, 구성요소를 인가를 알려준다.

유엔 ‘여성, 평화, 안보’ 의제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평화의 구축과정에는 그 존재 여부에 따른 여파를 살게 되는 모든 사람의 참여와 대표가 필수적이다. 서울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한반도 미래대화’로 기획한 FGI 결과, 평화 만들기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의 일상적 안전, 자신의 일에서의 만족과 평등, 사회적 정의 만들기는 남북관계,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의 점진적 사회통합 등과 연계되는,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 평화는 타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소통과 교류, 다양성의 존중과 포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GI를 통해 확인한, 일상의 안전, 삶의 질 보장, 평등과 정의의 조건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의식 및 선호 결과는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의 관점에서 평화가 여성의 인간안보, 기본권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응이 (기존의 전통안보 관점의 ‘소극적 평화’ 노력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전과 교착, 실패와 재개를 반복하는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비교연구는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의 중요한 요인으로 시민사회의 포괄적 참여, 협의주의적 거버넌스를 강조한다(Tong 2014; Paffenholz 201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은 국내 다양한 계층, 집단의 평화, 안보에 대한 인식 및 요구의 반영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한반도 평화, 안보에 대한 인식 및 미래선호를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은 모두의 참여에 의해 가능하고 모두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하는 평화구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평화구축에서 참여와 대표 확대, 시민들을 포

괄한 거버넌스에 바탕한 평화구축을 지향하면서 유엔 WPS의 한반도적 실천의 관점에서 지역, 다른 젠더들로 확장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2. 웹사이트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문헌자료

- 강윤희. 2013.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 확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를 중심으로.” 세계정치, 19
- 강윤희·김경미·최정원. 2004. “한국 정치학에서의 성정치학의 연구현황과 제언.” 한국 정치학회보, 38(3)
- 구본상. 2020. “한국인의 통일의식에서의 성차 검증: 여성평화가설의 적용.” 한국정치 학회보, 54(5)
- 김동진. 2013.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16(3)
- 김엘리. 2010. “여성과 평화의 불완전한 조우와 그 성격.” 여성과 평화, 5
- 김엘리. 2016. “여성의 군 참여 논쟁.” 한국여성학 32(1)
- 김영준. 2017. “국제정치학에서 여성 평화가설의 발전과 한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평 화학연구, 18(1)
- 김정수. 2020. “왜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 여성과평화 6
- 김태경 외. 2022.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국회미래연구원.
- 김현미. 2010.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이동하는 여성들,” 여성과평화 5
- 문소정. 2009. “동아시아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한국여성평화운동에 관한 연구.” 사회 와역사 84
- 문아영. 2020. “‘여성’이면서 ‘청년’인 ‘평화활동가’이거나 ‘평화활동가’인데 ‘여성’이고 ‘청년’이거나,” 여성과평화 6
- 박강성주. 2010. “여성주의 안보연구 시론.” 여성과평화 5
- 박성원 외. 2022.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심영희·김엘리. 2005. 한국여성 평화운동사. 한울아카데미
- 이나영. 2010. “기지촌 형성 과정과 여성들의 저항.” 여성과평화 5
- 이현옥. 2016.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돌봄레짐 변화와 이주의 여성화,” 경제와사회 110
- 정현백. 2004. “한국의 여성평화운동, 그 성과와 과제,” 사회과학연구 12(2)
- 정현백. 2014. “국가와 여성평화운동: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평화정치를 중심으로.” 여성과역사 20
- 조영주. 2021.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와 대한민국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 수립의 의미,” 젠더리뷰 60
- 통일연구원. 2020.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2021.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 황영주. 2003.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국제정치논총, 43(1)
- 황영주. 2013.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기원, 주장, 그리고 분석,” 세계정치 19
- Boutros-Ghali, Boutros. 1992. *An Agenda for Peace*. New York: United Nations
- Confortini, Catia C. 2006. “Galtung, Violence, and Gender: The Case for a Peace Studies/Feminism Alliance,” *Peace & Change*, 31(3)
- Davies, Sara E., and Jacqui True, eds. 2019. *The Oxford Handbook of Women, Peace, and Secur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nloe, Cynthia H. 1989. *Bananas, Beaches &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Pandora.
- Galtung, Johan. 1976. “Three realistic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peacebuilding.” in *Impact of Science on Society XXVI*, 1/2, pp.103-115
- Galtung, Johan.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Sage Publications

- Gentry, Caron E., Laura J. Shepherd and Laura Sjoberg. 2019. *The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Secur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oetz, Anne, and Rob Jenkins. 2018.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Security Council Dynamics, Bureaucratic Politics, and the Evolution of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in Fionnuala Ni Aolain, Naomi Cahn, Dina Francesca Haynes and Nahla Valji, eds.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and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darach, John Paul. 2015. *Little Book of Conflict Transformation*, New York: Good Books
- Lederach, John Paul. 1999. "Justpeace," in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People Building Peace*. Utrecht: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 Ni Aolain, Fionnuala, Naomi Cahn, Dina Francesca Haynes and Nahla Valji, eds. 2018.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and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tto, Dianne. 2018. "Women, Peace, and Security: A Critical Analysis of the Security Council's Vision," in Fionnuala Ni Aolain, Naomi Cahn, Dina Francesca Haynes and Nahla Valji, eds.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and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joberg. 2013. "Viewing Peace Through Gender Lenses,"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27(2)
- Sylvester, Christine. 2001.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An Unfinished Journ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ckner, J. Ann. 1992.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International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Tickner, J. Ann. 2001. *Gendering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Webel, Charles and Johan Galtung, eds. 2007. *Handbook of Conflict and Peace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Webel, Charles and Jorgen Johansen, eds. 2012. *Peace and Conflict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 웹사이트

Jung, Yeonju. 2020. From grassroots to peace talks: Women in the inter-Korean peace process. SIPRI Commentary. <https://www.sipri.org/commentary/topical-backgrounder/2020/grassroots-peace-talks-women-inter-korean-peace-process>(검색일: 2022.12.27.)

Reychler, Luc. 2017. Peacemaking, Peacekeeping, and Peacebuilding. Oxford Research Encyclopedias. <https://doi.org/10.1093/acrefore/9780190846626.013.274>(검색일: 2022.12.27.)

Abstract

Women and Futures of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ticipate the evolution of sustainable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perspective of women. By delving into the perspectives and aspirations of women in relation to peacebuilding from a mid-to-long-term standpoint, we aim to promote changes in the current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of women remain inadequate. This study employ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rough the utilization of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a sample population of women who possess an inclination toward issues of peace and security.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these participan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sight into the gendered dimensions of security and peace discourse and how they reflect the sociocultural context in which individuals internalize gender-specific attitudes, values, practices, and norms. The study is guided by the UN Women, Peace, Security (WPS) agenda and comprises three distinct sub-topics: the intersection of women and daily safety,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their workplace and home environments, and the broader implications of these issues for women as a whole. The findings of our Focused Group Interview (FGI) study, which surveyed a sample of five groups of 25 women, ranging in age from their 20s to 60s and residing in the city of Seoul, indicate that women perceive peace as a multifaceted concept encompassing elements such as personal safety, quality of life, equality, and fairness. Our FGI participants consistently highlighted that South Korea is not a safe society for women and that

gender inequality persists in workplaces and families, despite the absence of legal discrimination. Regar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articipants expressed a diverse array of perceptions of threats and offered a wide range of suggestions for achieving future peace and integration. Our results on women's preferences for safety in daily life, the assurance of quality of life, and the attainment of equality and justice suggest that peace should be comprehensively defined in terms of women's human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sustainable peacebuilding.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eacebuilding efforts aimed at achieving "positive peace" to be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traditional "negative peace" efforts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

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02-6948-9650)

©2022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82065-4-1 (95340)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